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87호 【루계 제25230호】 주체105(2016)년 3월 27일 (일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원쑤들의 아성을 무자비하게 징벌할 증오의 불길로 70일전투장마다에서 승전포성을 더 높이 울리자

70일전투장에서 보내온 소식

언제콩크리트속벽타입공사 완전결속

백두산영웅청년3호발전소건설장에서

70일전투의 철야진군과 함께 온 나라 방방곡곡에서 새로운 기적과 위훈의 소식들이 련이어 전해지고있는 속에 백두산영웅청년3호발전소의 언제가 마지막정점을 향해 치솟고있다.

백두대지의 설한풍속에서 당앞에 다진 맹세를 지켜 결사관철의 정신력을 발휘해온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 함경남도려단의 지휘관들과 청년돌격대원들은 지난 3월 24일 언제콩크리트속벽타입공사를 완전히 끝내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이로 하여 언제공사를 3월중으로 끝낼수 있는 확고한 전망이 열리였다.

언제콩크리트속벽의 첫 타입을 시작한 지난 1월 13일부터 불과 70여일만에 이룩된 이 성과는 당 제7차대회전으로 3호발전소건설을 무조건 끝내기 위하여 총공격전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는 전체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원들의 결사관철의 투쟁정신이 낳은 자랑찬 결실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청년들은 청년강국의 주인으로 내세워준 당의 믿음을 깊이 간직하고 조국을 떠받드는 억센 기둥으로 더욱 튼튼히 준비하며 강성국가건설의 전투장마다에서 기적의 창조자, 청년영웅이 되여야 합니다.》

현장련합지휘부에서는 발전소건설을 당 제7차대회전으로 무조건 끝내기 위한 중심고리의 하나를 언제콩크리트속벽타입공사로 정하고 지난 1월부터 이 공사를 추진시키기 위한데 선차적인 힘을 넣었다.

총타입량이 8 500㎥이상에 달하는 콩크리트속벽타입공사를 겨울철에 더우기 령하 30℃를 오르내리는 백두대지의 혹한속에서 진행한다는것은 지금까지의 수력건설력사에 없는 새로운 장거였다.

현장련합지휘부의 일군들은 새로운 영웅청년신화를 창조하고 승리의 5월을 맷맷이 맞이할 불같은 열의에 넘쳐 통이 크고 대담한 작전을 펼치였다.

《온도보장문제, 시공의 요구를 엄격히 지키고 공사에 파학기술을 적극 도입하는 문제, 로력배치와 지휘를 짜고드는 문제를 비롯하여 공사의 질과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나갔다.

온갖 원쑤들의 천하무도한 도발망동에 접한 이곳 청년돌격대원들의 가슴가슴은 원쑤격멸의 의지로 세차게 끓어번졌다.

우리 운명의 눈부신 태양을 감히 가리워보려는자들을 가차없이 징벌해버릴 의지로 만장약한 청년돌격대원들은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을 죽탕치는 심정으로 공사속도를 최대한으로 높이였다.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 함경남도려단의 청년돌격대원들이 백두전역의 공격전의 기수로서의 전투력을 힘있게 떨치며 언제콩크리트속벽타입공사를 기본적으로 맡아 수행하였다.

려단의 지휘관들은 휘틀과 철근조립을 선행시키고 겨울철조건에서 공사를 진행하는데 맞게 보온대책을 세워나갔다.

또한 속벽타입이 한단한단 끝날 때마다 보온덧집을 올려세우는 공사를 최대한 앞당기고 타입시간을 줄이는 등 공사속도를 높일수 있는 합리적인 방도들을 찾아내도록 하였다.

려단의 청년돌격대원들이 청춘의 슬기와 용맹을 남김없이 과시하며 콩크리트속벽타입에서 기적과 위훈을 창조하였다.

청년돌격대원들은 령하 30℃를 오르내리는 강추위속에서 허리를 치는 물속에 서슴없이 뛰여들어 말뚝들을 조립하고 박막과 방수포를 씌워 덧집을 완성하며 낮과 밤이 따로 없이 불꽃튀는 전투를 벌려나갔다.

속벽기초타입시 얼음녹은 물이 차게 되면 양수기를 만부하로 돌리면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여 물을 퍼내고 휘틀을 조립하며 순결한 애국의 마음을 언제에 묻어갔다. 그들은 덧집의 온도가 낮아질 정황이 조성될 때면 자기들의 모포와 이불 지어는 솜옷과 비옷까지 벗어 콩크리트의 타입면을 감싸면서 공사의 질을 철저히 보장하였다.

70일전투기간 이곳 돌격대원들은 청년강국의 주인공들의 기상과 본때를 힘있게 과시할 결사의 각오안고 총공격전을 벌림으로써 매일 계획을 130%로 넘쳐 수행하였다.

당의 사상과 의도를 영웅적실천으로 받들어나가는 청년돌격대원들의 불타는 충정의 마음에 의하여 70일전투가 시작되여 한달동안에 공사량의 근 40%가 수행되는 놀라운 성과가 이룩되고 드디여 지난 24일 속벽타입공사의 결속을 알리는 승리의 함성이 터져올랐다.

지금 백두산영웅청년3호발전소건설장에서는 하루빨리 언제를 완공하여 이머니 우리 당에 충정의 보고를 올릴 백두청춘들의 불변의 신념이 더더욱 불타오르고있으며 그로 하여 날에날마다 세인을 놀래우는 새로운 기적과 위훈이 창조되고있다.

현지보도반

벨트콘베아수송선공사 완공

구장지구탄광련합기업소 룡등탄광에서

구장지구탄광련합기업소 룡등탄광에서 지난 3월 20일까지 뜻깊은 태양절을 맞으며 완공할 것을 목표로 내세웠던 벨트콘베아수송선 설비제작 및 설치공사를 앞당겨 끝내고 21일부터 정상운영을 시작하였다. 굴지의 한전의 하나인 탄광의 선무력지구에 또 하나의 벨트콘베아수송선이 생겨남으로써 석탄운반능력을 2배로 높여 석탄생산을 본격적인 상승단계에로 끌어올릴수 있는 확고한 전망이 열리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은 당에 대한 불타는 충정과 비상한 애국열의를 안고 총궐기하여 세기를 주름잡으며 최후승리를 향해 내달리는 조선의 기상과 본때를 힘있게 과시하여야 합니다.》

석탄공업성의 직선에 따라 탄광에서는 지난해 11월부터 탄광의 석탄생산을 보다 높은 단계에로 끌어올리기 위한 벨트콘베아수송선공사가 시작되였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탄광에서는 뜻깊은 태양절까지 공사를 완공할 높은 목표를 제기하고 일군들과 탄부들의 정신력을 최대로 분출시켰다.

탄광의 벨트콘베아수송선공사에서 가장 어려운 대상은 연장길이가 수백m나 되는 갱도구간에 대한 굴진전투였다. 이 굴진전투의 성과적보장에 벨트콘베아수송선공사의 시일을 보장하느냐 마느냐 하는 관건적문제가 놓여있었다.

한하늘을 이고 살수 없는 미제와 괴뢰역적패당에게 가장 참혹한 멸망을 안길 의지를 안고 대상굴진공사에 동원된 김광일고속도굴진소대 굴진공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 10일까지 수백m구간에 대한 굴진전투를 전부 끝내는 기적과도 같은 성과를 이룩하였다.

이들의 투쟁을 도와 탄광지구녀맹원들이 한사람같이 떨쳐나섬으로써 굴진막장에서는 뚜렷한 굴진성과가 이룩되였다.

소대장 김광일동무는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10㎥압축기 한대로 수백m지리에 떨어져있는 막장에 두대의 착암기를 접수 할수 있는 작업조건을 마련하고 2중심배기에 의한 발파방법을 받아들여 작업면이 상대적으로 크고 암질이 굳은 조건에서도 하루 5~6회의 발파를 보장함으로써 최고의 굴진속도를 기록하였다.

이곳 소대원들의 굴함없는 돌격정신은 70일전투의 개시와 함께 더 높이 발휘되였다.

이들은 고대가 고대를 돕는 집단주의를 높이 발휘하면서 련속 천공, 동시버력적재의 합리적인 작업방법으로 맞다드는 천연암벽을 기세좋게 조져대면서 련일 높은 굴진실적을 기록하였다.

결사관철의 의지로 백통치는 이곳 굴진소대 굴진공들의 드세찬 공격으로 진격의 돌격로가 열린 조건에 맞게 석탄공업성과 구장지구탄광련합기업소 그리고 탄광일군들은 설비보장대책과 설비부분품생산대책을 철저히 세우고 설비조립전투를 불이 번쩍 나게 해제끼도록 함으로써 계획보다 근 한달 앞당겨 벨트콘베아수송선공사가 완공되게 하였다.

탄광에서 벨트콘베아수송선이 정상가동을 시작함으로써 수십대의 탄차, 수백m의 레루를 비롯한 많은 설비와 자재를 절약하면서도 종전보다 하루 수백t 더 많은 석탄을 생산할수 있게 되였다.

본사기자 강명천

원쑤격멸의 기상안고 케블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평양326전선공장에서— 본사기자 한광명 찍음

데트론인견사에 의한 양말생산 국산화 성공

평양양말공장에서

평양양말공장에서 데트론인견사에 의한 양말생산의 국산화를 실현하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70일전투기간에 이룩된 이 성과는 우리 나라에서 생산하는 실로 양말생산을 늘일뿐아니라 종전보다 더 좋은 질김도를 보장하고 양말무늬의 다양화와 양말의 다색화실현에서 결정적돌파구를 열어놓은것으로 된다.

지난 시기 무늬양말생산에는 나이론사가 들어갔다. 하지만 원료를 수입에 의존하다보니 생산정상화에서는 난관이 없지 않았다.

원료, 자재의 국산화실현에 생산활성화와 자력자강의 길이 있다는것을 명심한 공장당조직에서는 대담하게 나이론사를 우리 나라에서 생산하는 데트론인견사로 바꿀것을 결심하고 생산자대중을 불러일으켰다.

가열할 때 줄어드는 데트론인견사의 특성으로 하여 전용염색설비와 실감는기계를 일식으로 사와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으나 공장일군들은 로동자, 기술자들속에 더 깊이 들어가 자력자강의 정신력을 최대한 분출시키였다.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1970년대 70일전투를 힘차게 벌려 순회우승기를 쟁취한 전통을 계승하여 만리마시대인 오늘의 70일전투에서도 승리자가 될 일념으로 전투에 떨쳐나섰다. 기술과장 리대석, 준비직장 직장장 리광윤, 기술준비실장 차국철동무를 비롯한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철야전투를 벌려 드디여 데트론인견사를 양말생산의 주원료로 리용할수 있는 창의고안에 성공하였다.

공장에서 이룩한 커다란 성과는 우리의 원료, 우리의 설비로 양말생산을 하겠다는 공장로동계급의 자력자강의 정신력이 안아온 빛나는 결실이다.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생산능력의 질적토대를 확고히 다지며 성과를 계속 확대해나가고있다.

전혜영

백두산영웅청년3호발전소 대상설비생산을 끝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이미 마련된 자립경제의 토대와 온갖 잠재력을 최대로 발동하여 인민생활향상과 경제강국건설에서 전환을 이룩하여야 합니다.》

미제와 박근혜역적패당의 그 어떤 망발에도 끄떡없이 우리의 로동계급은 자강력의 억센 마치로 백두전역에 보낼 제판품과 대상설비생산을 빛나게 결속하였다. 그리하여 백두산영웅청년3호발전소건설을 당 제7차대회전으로 끝낼수 있는 확고한 담보가 마련되였다.

라남탄광기계련합기업소에서

총정의 70일전투에 떨쳐나선 라남탄광기계련합기업소의 로동계급이 백두산영웅청년3호발전소건설장에 보내줄 대상설비들과 30여종에 수백개에 달하는 협동부분품생산을 계획보다 13일이나 앞당겨 결속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련합기업소당위원회에서는 화선식정치사업을 힘있게 들이대며 백두산영웅청년3호발전소건설장에 보내줄 대상설비생산을 기한전에 끝내도록 로동자, 기술자들을 불러일으켰다. 혁신자축하모임을 의의있게 진행하고 모든 직장, 작업반들에서 앞선 단위를 따라앞서기 위한 경쟁열풍이 세차게 일도록 하였다.

총정의 70일전투장마다에서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생산전투가 힘있게 벌어졌다.

채탄기직장에서는 가공과 조립을 립체적으로 벌려 열흘이 걸려야 하는 기중기조립을 단 이틀사이에 해제끼였다. 권양기직장에서는 여러대의 대형설비들을 자체의 힘과 기술로 살려내어 생산정상화에 이바지하였고 마광기직장에서는 로동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이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어 단위시간당 생산량을 종전보다 훨씬 늘이였다.

사슬콘베아직장에서는 설비관리와 기술관리를 짜고들고 집단주의기풍을 높이 발휘하여 대상설비부분품가공과 조립속도를 종전에 비해 2배이상으로 끌어올리였다.

특히 콘베아직장에서는 70일전투가 시작된 첫날부터 생산적앙양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켜 30여일은 실히 걸려야 한다던 대상설비생산을 20여일동안에 해제끼는 전례없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직장에서는 많은 대상설비생산을 힘있게 내밀면서 협동품생산에 힘을 넣어 생산기일을 앞당기는데 이바지하였다.

주강직장에서는 전기로운영을 책임적으로 하여 수십종에 달하는 주강품을 제때에 생산보장하였고 주물직장에서는 수백개의 주물품생산을 중단없이 내밀어 대상설비생산기일을 앞당기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라남의 로동계급은 백두산영웅청년3호발전소 대상설비생산을 성과적으로 끝낸 자랑을 안고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보내줄 대상설비생산에서 계속 혁신을 일으켜나가고있다.

특파기자 리은남

청진금속건설련합기업소에서

청진금속건설련합기업소에서 백두산영웅청년3호발전소건설장에 보내줄 제판품생산을 빛나게 결속하였다.

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70일전투에로 부른 당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치렬한 전투를 벌려 수백에 달하는 방대한 량의 제판품생산을 성과적으로 끝내는 전례없는 혁신을 창조하였다.

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련합기업소의 일군들은 제판품생산을 앞당겨 끝내기 위한 단계별목표를 명백히 세우고 예비와 가능성을 총동원하여 일정계획을 드팀없이 내밀도록 전투조직과 지휘를 짜고들었다.

송평제판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이 제판품생산에서 혁신을 일으켰다.

이들은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자체의 힘과 기술로 뚫고나가면서 때일 맡겨진 전투과제를 180%이상 해제끼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특히 내부예비를 적극 탐구동원하여 발전기실지붕트라스, 취수구문틀을 비롯하여 덩지가 큰 제판품제작을 3일동안에 해제끼는 높은 실적을 기록하였다.

공무동력1, 2직장의 로동자들은 제판품생산의 첫 공정을 맡은 높은 책임감을 지니고 설비들의 만가동을 보장하여 많은 량의 가공품들을 짧은 기간에 생산보장하였다.

련합기업소의 가족들도 낮과 밤이 따로 없이 전투를 벌리는 로동자, 기술자들을 물심량면으로 지원하였다. 년로보장을 받은 기능공들도 생산현장에 달려나와 로동자들을 력력으로, 기술적으로 적극 도와주었다.

그리하여 련합기업소에서는 백두산영웅청년3호발전소건설장에 보내줄 수백에 달하는 제판품생산을 계획보다 17일이나 앞당겨 끝내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특파기자

함흥청년전기기구공장에서

함흥청년전기기구공장의 로동계급이 12종에 수십대에 달하는 대상설비생산을 성과적으로 끝내고 백두산영웅청년3호발전소건설장으로 떠나보냈다.

공장에서는 당조직의 지도밑에 70일전투목표를 대담하고 통이 크게 세우고 대상설비생산을 하루빨리 완성하기 위하여 교차생산조직을 빈틈없이 하고 자재보장을 확고히 앞세워나갔다. 기사장 김홍갑동무와 기술일군들은 요소제작과 설비조립에서 기술규정의 요구를 엄격히 지키고 질을 철저히 보장하도록 요구성을 높이였다.

각 직장의 로동자들은 자강력제일주의정신을 발휘하면서 불리한 속에서도 생산을 적극 다그쳐 3월에 들어와 맡겨진 대상설비생산과제를 련이어 결속하였다.

공장청년동맹조직에서는 청년돌격대를 뭇고 그들이 총정의 70일전투에서 선군시대의 청년돌격정신을 높이 발휘하도록 적극 불러일으켰다. 공장청년들은 생산의 선행부문인 소재공정을 앞세우기 위해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전투를 벌려 대상설비생산계획을 앞당겨 끝낼수 있는 돌파구를 마련하였다.

그리하여 공장에서는 분전함, 비대칭지항기를 비롯한 12종에 수십대의 설비들을 백두산영웅청년3호발전소건설장으로 떠나보내는것과 함께 7종에 수십개에 달하는 협동품들을 완성하여 대안중기계련합기업소와 평양자동화기구공장에 보내주었다.

함흥청년전기기구공장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의 성과는 언제나 백두산을 안고 사는 우리 인민들의 투쟁을 크게 고무해주고있다.

본사기자

무섭게 격노한 우리 백두산군대는 원쑤격멸의 선제타격명령만 기다리고있다

조선인민군 전선대련합부대 장거리포병대 최후통첩장

우리의 최고수뇌부를 결사옹위하려는 천만군민의 신념과 의지를 멸적의 포탄들에 새워 적진을 사정없이 조져댄 무적의 강철포신들이 식을줄 모르고 무섭게 달아오르고있다.

천지를 진감하며 도발의 아성들을 가상한 적진을 순식간에 불바다로 만들어버린 우리 장거리포병대의 일제사격은 우리의 최고존엄을 감히 건드리려는 천인공노할 만행을 저지른 악한들에 대한 참을수 없는 증오와 분노의 대폭발이며 박근혜괴당에게 가장 참혹한 최후종말을 선언하는 무자비한 보복전의 개시이다.

하늘의 태양을 가리워보려고 한 만고대역죄는 천추만대를 두고도 용서받지 못한다.

존엄높은 최고사령부의 차후 타격명령을 기다리고있는 우리 전선대련합부대 장거리포병대는 이미 살아숨쉬기를 그만둔 박근혜괴당에게 다음과 같은 최후통첩을 보낸다.

1. 천하역적 박근혜와 그 괴당은 감히 천하무도한 만고대역죄를 저지른데 대해 북과 남, 해외의 온 민족앞에 정식 사죄하여야 한다.

우리의 존엄높은 선군태양은 온 겨레의 삶과 운명의 전부이시고 찬란한 미래이시다.

이에 대해 감히 삿대질하고 헤치려드는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용서받지 못할 죄악중의 죄악으로 된다.

온 겨레앞에 사죄하라, 그것만이 비루한 잔명이나마 부지할수 있는 마지막방책으로 될것이다.

2. 천하역적 박근혜와 그 괴당은 천인공노할 《핵심부타격》을 고안해내고 그 실행을 꿈꾸려 한 만고죄인들에게 즉시 가장 참혹한 형벌을 가하여 온 민족앞에서 가차없이 응징처참해버려야 한다.

이 세상에 사람가죽을 쓰고 저지르지 말아야 할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늘의 태양을 어째보려는 어리석은 망동이다.

이 대역죄는 그 무엇으로 변명할수도, 모면할수도 없으며 가장 몹서리치는 천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온 겨레앞에서 공개처형하라, 그것만이 악의 본거지인 청와대와 반동통치기관들이 징벌의 불세례를 면할수 있는 마지막기회로 될것이다.

3. 천하역적 박근혜와 그 괴당이 우리 군대의 최후통첩에 불응해나선다면 전선대련합부대 장거리포병대는 무자비한 군사행동에로 넘어가게 될것이다.

공개사과와 공개처형은 청와대와 반동통치기관들을 사정권안에 잡아넣고 징벌의 선제타격명령을 기다리고있는 우리 장거리포병대의 최후경고이다.

지금 탕장이라도 집중화력타격의 발사단추를 누르면 동족대결과 민족분렬의 모든 악과 비극을 산생시켜온 적진은 순식간에 재더미로 화하게 될것이다.

박근혜와 그 괴당이 아무리 《전국경계태세강화》요, 《긴급작전지휘관회의》요 뭐요 하며 북닥소동을 피워대도 무질없는것이다.

출로는 오직 하나 우리 군대의 최후통첩을 공손히 받아들이는것뿐이다.

무섭게 격노한 우리 전선대련합부대 장거리포병대의 집중화력타격권안에 청와대와 반동통치기관들이 들어있다는것을 순간도 잊지 말아야 한다.

우리 백두산군대는 빈말을 하지 않는다.

주체105(2016)년 3월 26일

조선인민군 전선대련합부대 장거리포병대

위대한 천출명장의 담력과 배짱으로 70일전투철야진군에 더 큰 박차를!

충정의 전투에서 통장훈을 불러오는 선군령장의 힘찬 발걸음

７０일전투가 시작된 때로부터 30여일이 흘렀다.

이 나라의 푸른 하늘에 여전히 핵전쟁의 짐은구름이 밀려들고있지만 봄기운이 완연한 조국의 대지에는 혁신과 비약의 억센 기상이 나래치고있다.

30여일, 우리 민족사의 한순간에 불과한 이 기간 얼마나 놀라운 성과들이 이룩되고 얼마나 장엄한 승리의 교향곡이 울리였던가.

지금 우리 조국은 위대한 당의 굴함없는 공격적인 혁명사상, 현명한 령도의 지휘따라 민족의 천만년미래를 억척같이 담보하는 거대한 사변들을 다발적으로, 련발적으로 확신성있게 마련해가고있으며 하루가 다르게, 아침과 저녁이 다르게 변모의 새 모습을 펼쳐가고있다.

얼마나 환희로운가, 얼마나 신심과 락관으로 충만된 70일전투의 장쾌한 숨결인가.

천만대오를 이끄시고 ７０일전투의 앞장에서 승리의 통장훈을 불러오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거룩한 자욱이 우리의 가슴을 뭉뭉 울린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해방직후 수령님의 애국의 호소를 받들고 새 민주조선을 일떠세운 세대들처럼, 전후 재더미로 된 빈터우에 맨손으로 인민의 락원을 일떠세운 천리마시대의 영웅들처럼 선군시대의 참다운 애국자가 되여 사회주의강성국가를 보란듯이 일떠세워야 합니다.》

지난 2월 어느날이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일군들과 자리를 같이하시고 이번에 당에서는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높은 정치적열의와 전례없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하려는 전체 군대와 인민의 앙양된 혁명적열의를 고조시키기 위하여 ７０일전투를 벌릴것을 결심하였으며 그와 관련하여 당중앙위원회, 당중앙군사위원회 공동구호를 발표한데 이어 전체 당원들에게 편지를 보냈다고 말씀하시였다.

이 뜻깊은 말씀을 되새기며 일군들은 끝없는 환희와 열정으로 가슴설레임을 금치 못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일군들을 미더운 눈길로 바라보시며 모든 당조직들에서 당의 의도에 맞게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승리자의 대회, 영광의 대회로 빛내이기 위한 충정의 ７０일전투를 힘있게 벌리도록 하여야 하겠다고, 우리 혁명의 전환적인 계기들마다 대고조를 일으키기 위한 전투를 힘있게 벌려 위대한 전변의 력사를 안아오고 눈부신 기적을 창조해나가는것은 우리 당의 자랑스러운 전통이라고 감회깊은 어조로 말씀하시였다.

충정의 ７０일전투!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과 철의 의지가 빛발치는 말씀을 받아안는 일군들의 뇌리에 문득 떠오르는 것이 있었다.

우리 당력사의 갈피에 금문자로 새겨진 사회주의대전설전투들이 얼마나 많았던가.

７０일전투, １００일전투, ２００일전투…

이 전투들을 몸소 작전하시고 진두지휘하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현명한 령도는 이 땅우에 로동당시대의 일대 전성기를 열어놓았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일군들에게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창조하신 사회주의대전설전투전통을 계승발전시켜 승리에서 더 큰 승리를 이룩하여야 하며 수령님들의 념원대로 이 땅우에 사회주의강성국가를 반드시 일떠세워야 한다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일군들은 오직 위대한 수령님식, 장군님식대로 강성국가건설을 줄기차게 이끌어가시려는 그이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갈 맹세로 심장을 불태웠다.

２월 ２３일, 위대한 김정은시대 주체조선이 어떤 기적을 또다시 안아오는가를 온 세계에 똑똑히 보여주게 될 ７０일전투의 장엄한 포성이 울렸다. 온 나라가 위대한 당의 부름따라 전호를 박찬 병사마냥 전투에 맹렬히 돌입하였다.

《동무는 오늘 전투계획을 수행하였는가?》

《동무는 만리마를 탔는가?》

이것은 당원들만이 아니라 전투에 참가하는 모든 사람들의 전투기록장들에 애국의 적문으로 새겨졌고 돌격전에로 부르는 진격나팔소리가 되여 총진군대오의 앞길에 쩡쩡 메아리쳤다.

원쑤들의 온갖 도전과 발악적인 책동속에서도 최상의 성과를!

이 한문장에 30여일에 걸치는 철야전투의 궁지높은 총화가 있다.

７０일전투공격전의 돌파구는 어떻게 열렸는가.

전투의 시작과 더불어 신문과 방송을 통하여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중대성명이 발표되였다.

７０일전투의 시작과 최고사령부 중대성명!

그것은 70일전투가 단순한 전투가 아니라 투철한 수령결사옹위전, 만리마를 타고 최악의 역경을 최상의 성과로 뒤번져놓으며 온갖 적대세력들의 발악적책동을 짓부시는 정의의 성전임을 말하여주는것이였다.

전투가 시작되여 며칠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우리의 영웅적군수로동계급이 새로 개발한 반땅크유도무기시험사격을 지도하신 혁명활동소식은 천만군민의 가슴에 타번지는 불길이 더욱 치솟아오르게 하였다.

정말 불만 한 사격이라고, 이 무기는 나무랄데 없는 우리 나라 현실에 알맞는 주체무기이라고, 군수공업전선의 ７０일전투의 서막을 장엄한 포성으로 열어제꼈다고 하시며 호탕하게 웃으신 경애하는 원수님.

그이의 모습을 우러르며 천만군민은 무엇을 심장에 새기였던가.

자강력만이 승리의 길이다.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투쟁기풍도, 희생단을 돌파하려는 아심만만한 배짱과 기질도 자강력에서 나온다!

동무는 만리마를 탔는가라는 물음에 떳떳이 대답할수 있게 전투적으로 살며 투쟁하여야 한다!

군수공업부문의 로동계급만이 아니라 온 나라가 선군령장의 숭고한 뜻을 ７０일전투의 승리의 기치로 받아안고 산악같이 떨쳐나섰다.

원쑤들의 도발책동을 짓뭉개버리고 ７０일전투의 승리를 안아오기 위한 침입식정치사상사업, 화선식경제선동, 전민학습, 자력자강의 열풍으로 온 나라가 불도가니가 되여 들끓었다.

７０일전투의 30여일간 우리 조국은 당과 군대와 인민이 철통같이 뭉친 강철의 혁명적단결은 몇십, 몇백개의 원자탄이나 수소탄에 비할바 없는 조선의 최강의 힘이라는것을 뚜렷이 보여주었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중대성명 발표후 이틀동안 전국적으로 １５０여만명의 일군들과 근로청년들, 학생들이 인민군대입대, 복대를 탄원하였다.

이 소식을 보고받으시는 우리 원수님의 심중이 얼마나 뜨거우시였으랴. 그이께서는 그처럼 바쁘신 가운데서도 열렬한 애국충정과 원쑤격멸의 의지로 가슴 불태우며 조국보위에 탄원한 일군들과 근로청년들, 학생들에게 친히 감사문을 보내주시였다. 이 크나큰 사랑과 믿음은 오늘도 우리 인민이 원쑤들의 도전을 파탄시 이겨내며 ７０일전투에서 새로운 영웅적투쟁기풍을 창조, 창출할수 있게 하는 또 하나의 위력한 원천으로 되고있다.

련이어 전해지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혁명활동소식과 더불어 통쾌한 소식들이 이 땅을 진감시키였다.

신형대구경방사포시험사격, 조선인민군 전략군의 탄도로케트발사훈련, 《조선인민군 땅크병경기대회—２０１６》, 탄도로케트 대기권재돌입환경모의시험, 조선인민군 상륙 및 반상륙방어연습…

우리의 반땅크유도무기가 기동력과 타격력이 발전되였다고 자랑하는 적땅크, 장갑차들도 삶은 호박처럼 만드는것이라면 주체무기인 신형대구경방사포는 전고하게 설비한 인원, 땅크, 포, 전투차량에부들을 신기할 정도로 공가루같이 부서뜨린다.

해외침략무력이 투입되는 적지역의 항구들을 타격하는것으로 가상하여 목표지역의 설정된 고도에서 핵전투부를 폭발시키는 사격방법으로 진행된 조선인민군 전략군의 탄도로케트발사훈련,

전쟁이 일어나면 파죽지세로 달려나가 무쇠철갑으로 적진을 짓뭉개버리고 원쑤들을 무자비하게 격멸소탕하기 위한 조선인민군 땅크병들의 번개같은 훈련모습, 신성한 내 조국강토에 단 한점의 불꽃이라도 튕긴다면 백두산혁명강군의 총대로 원쑤들에게 무자비한 죽음을 안기고 전쟁의 근원을 송두리째 들어내고야말것이라는것을 힘있게 과시한 조선인민군 상륙 및 반상륙방어연습광경…

며칠전에 진행된 청와대와 서울시안의 반동통치기관들을 격멸소탕하기 위한 조선인민군 전선대련합부대 장거리포병대집중화력타격연습은 또 얼마나 천만의 가슴을 후련하게 해주었던가.

천지를 진감하며 노호하는 포성, 대기를 헤가르며 번개같이 날으는 로탄, 멸적의 강철로신들이 연해연방 내뿜는 시뻘건 불줄기,

그것은 인민군장병들의 가슴속에 다져진 증오와 분노, 참을길 없는 보복일념의 강렬한 메아리였으며 박근혜《정권》에 비참한 종말을 안기는 준엄한 철추였다.

그 하나하나의 승전소식들은 적들의 수적, 기술적우세를 휴지장, 파철로 만들어버릴수 있는 우리 식 주체무기완성을 알리는 커다란 사변이였고 백두산혁명강군은 그 무슨 경고나 사전통고없이 보다 더 확실하고 보다 더 최절한 징벌의 선제타격을 개시할것이며 력사의 돌풍속에서도 우리 조국이 만리마를 타고 최상의 성과를 마련해가고있다는것을 보여주는 뚜렷한 증시였다.

천만군민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거룩한 자욱에 심장의 보폭을 맞추며 전례없는 대혁신, 대비약으로 ７０일전투의 철야진군길에 아로새긴 승전소식들을 우리 어찌 다 전할수 있으랴.

돌이켜볼수록 가슴이 벅차오르고 눈굽이 찌뭇해진다.

만리마를 타고 승리에서 더 큰 승리에로 순간의 침체와 답보도 없이 줄기차게 전진하고 비약하는 ７０일전투의 나날은 곧 경애하는 원수님의 강행군서사시이다.

승리도 보통승리가 아니라 정신이 번쩍 드는 승리,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는 기적적인 승리만을 안아오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력과 실천력에는 한계가 없으며 그이께서 결심하시여 못해낸 일이란 없다.

충정의 ７０일전투는 이제 30여일 남았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당 제7차대회장의 높은 연단에, 강성국가의 영광의 단상에 하루빨리 모실 그날을 위하여 더 높이, 더 빨리, 더 용감무쌍하게 전진하자.

대혁신, 대비약을 창조하며 천만군민이여, 총돌격 앞으로!

본사기자 김 성 남

길이 전할 애국헌신의 자욱

심장에 불을 달아주는 현대화의 지침

７０일전투가 시작되여 며칠이 지난 어느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한 기계공장을 찾으시였다. 그이께서는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일군들에게 자신께서 오늘 이곳에 찾아온것은 공장을 현대화함으로써 우리 나라 기계제작공업발전의 새로운 도약대를 마련하자는데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일군들은 공장을 찾으신 그이의 웅심깊은 뜻을 가슴에 새기며 솟구치는 격정을 금치 못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공장을 세계적인 최첨단기계제작기지로 만들자는것이 당중앙의 의도이라고, 공장현대화사업을 우리 나라 기계제작공업발전의 미래와 관련되는 중대한 사업으로, 전략적인 문제로 보고 대해야 한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공장을 현대화할데 대한 당의 결심이 나라의 기계제작공업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한 결심, 부강조국건설을 위한 가장 정당한 결심이였다는것이 증명될수 있도록 먼 앞날을 내다보면서 세계를 압도하겠다는 높은 목표를 제기하고 현대화사업을 밀고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가장 정당하고 믿음직한 길

얼마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핵무기연구부문의 과학자, 기술자들을 만나시고 핵무기병기화사업을 지도하실 때의 일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핵탄을 경량화하여 탄도로케트에 맞게 표준화, 규격화를 실현했는데 이것이 진짜 핵억제력이라고, 조선사람이 마음만 먹으면 못해내는 일이 없다고 말씀하시였다.

그이의 눈가에 끝없는 희열이 넘쳐흐르고있었다.

이윽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가 보유한 핵무력이 상대해야 할 진짜 《적》은 핵전쟁 그 자체라고 하시면서 핵타격능력이 크고 강할수록 침략과 핵전쟁을 억제하는 힘은 그만큼 더 크다고, 핵무력을 질량적으로 억척같이 다져나가는것이 우리 조국강토에 들씌워질 핵전쟁의 참화를 막을수 있는 가장 정당하고 믿음직한 길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과학자, 기술자들의 가슴은 ７０일전투에서 우리 당의 핵무력건설구상과 의도를 제일 앞장에서 가장 훌륭하게 꽃피워갈 충정의 맹세로 끓어번졌다.

원쑤들과의 치렬한 대결전

지난 3월 １８일부 《로동신문》을 보면서 우리 인민은 누구나 높뛰는 흥분과 감동을 억제하지 못하였다.

몸소 현지에 나오시여 금수산태양궁전과 통흥네거리사이에 일떠설 려명거리건설을 선포하시고 건설에서 나서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고결한 충정의 세계가 뜨겁게 어려와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려명거리건설과 관련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면서 우리를 어째보려고 어리석게 날뛰는 원쑤들의 발악이 날이 갈수록 더욱 악랄해지고있는것은 우리가 전진하고있으며 승리하고있다는데 대한 가장 명백한 증명이라고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려명거리건설착공의 첫삽을 박는것으로써 자력자강으로 부강조국을 건설해가는 선군조선의 불패의 국력을 힘있게 과시하고 주체사상, 선군사상의 철리로 원쑤들의 머리를 후려치며 머러운 몸뚱이리에 치명적타격을 안기는 비수를 꽂자고 힘있게 선언하시였다.

려명거리건설은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과의 치렬한 대결전이다!

려명거리를 올해중에 반드시 일떠세워야 한다!

이 뜻깊은 말씀을 받아안으며 일군들은 위대한 선군령장의 담력과 배짱이 안아올 눈부신 미래를 확신성있게 내다보았다.

본사기자

충정의 ７０일전투에서 영예로운 승리자가 될 결의에 넘쳐있는 돌격대원들
—혁명사적지건설지도국에서— 본사기자 김 종 훈 찍음

드높은 학습열풍속에 억척같이 벼려지는 신념과 의지

이 땅에 전례없는 혁명적학습열풍이 세차게 몰아치고있다.

위대한 당의 호소따라 ７０일전투에 산악같이 떨쳐나선 우리 인민은 지난 ３０여일동안 혁명적학습열풍을 세차게 일으키며 대고조적전장마다에서 전례없는 기적과 혁신을 창조하여왔다.

７０일전투의 불길속에서 전체 군대와 인민이 우리 당의 굴함없는 공격적인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어떤 시련과 난관앞에서도 주호의 동요없이 맞받아나가는 신념과 의지의 강자들로 더욱 억세게 자라나고있는것은 더없이 귀중한 성과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전달적으로 다시한번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 총서인 불후의 로작들과 당문헌들을 환히 꿰뚫도록 하기 위한 학습열풍을 일으키는것으로부터 사상공세의 돌파구를 열어나가야 하겠습니다.》

각급 당조직들에서는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수령의 사상과 당정책을 뼈에 새기고 백절불굴의 혁명신념과 의지로 살며 투쟁해나가는 정신력의 강자들로 억세게 키우는것을 ７０일전투의 제일목표로 정하고 학습열풍을 세차게 일으켰다.

전력공업성, 석탄공업성, 국토환경보호성, 농업성을 비롯한 성, 중앙기관 당조직들에서는 ７０일전투를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와 그 구현인 당의 로선과 정책을 확고한 신념으로 간직하도록 하기 위한 학습열풍을 일으키는것으로부터 시작하였다. 우리 혁명의 자랑스러운 년대기들마다에 ７０일전투, １００일전투, ２００일전투, 새로운 ２００일전투, １５０일전투, １００일전투가 벌어지게 된 동기와 전투기간에 이룩된 성과와 요인 등을 새겨주는 집중학습을 통하여 일군들과 정무원들은 당의 부름이라면 한마음한뜻으로 떨쳐나 산도 옮기고 바다도 메우는 기적을 창조해나가는것이 우리 인민의 투쟁전통이며 기질이라는것을 더욱 깊이 체득하게 되였다.

평양시당위원회를 비롯한 각지의 당조직들에서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경애하는 원수님을 단결의 중심, 령도의 중심으로 높이 받들어모시고 당중앙을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절사옹위하는 성새, 방패로 튼튼히 준비시키기 위한 학습에 선차적인 힘을 넣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후의 로작들과 당문헌들을 환히 꿰뚫고 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더욱 철저히 확립하기 위한 사업이 학습회와 강연회를 비롯한 집체학습과 해설담화, 문답식학습경연 등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활발히 벌어졌다.

７０일전투에서 전례없는 비약을 이룩해나가자면 학습을 실천활동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강원도와 황해북도, 자강도를 비롯한 각지 당조직들에서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과 당정책을 자자구구 새겨가며 자기의 뼈와 살로 만들기 위한 학습을 혁명실천과 결부하여 끊임없이 심화시켰다.

강원도당위원회 일군들은 원산구두공장, 원산군민발전소건설장을 비롯한 들끓는 전투장들에 나가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령도업적과 당정책의 정당성을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가슴마다에 깊이 심어주기 위한 학습을 전투적으로 조직진행하였다.

자강도당위원회 일군들이 탄광들에서 갱목이 부족하여 석탄생산에 지장을 받고있는 사실을 알게 되였을 때였다. 그들은 즉시에 도, 시, 군급기관 일군들과 로동자들속에 들어가 그들의 정신력을 분출시키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화선식으로 전개하였다. 학습을 통하여 ７０일전투가 당중앙의 권위를 백방으로 보위하고 당의 구상과 결심을 빛나게 실현하기 위한 수령결사옹위전, 당정책옹위전이라는것을 폐부에 새긴 수많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산악같이 일떠섰다. 그들은 불리한 조건에서도 림산사업소들에서 생산한 많은 통나무를 짧은 기간에 쌓이 번쩍 나게 끌어내림으로써 서부지구 탄광들과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필요한 갱목과 목재를 원만히 보장할수 있게 하였다.

회령시, 청진시 송평구역, 대천군, 홍원군을 비롯한 전국의 시, 군(구역) 당위원회일군들도 들끓는 격전장들에 좌지를 정하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을 뼈속깊이 새긴 신념과 의지의 강자들로 억세게 키우기 위한 학습열풍을 세차게 일으켰다.

당조직들의 지도밑에 학습전투는 ７０일전투가 진행되는 격동적인 시기의 요구에 맞게 항일유격대식으로 활발히 벌어졌다. 간고한 행군길에서도, 숙영지의 우등불가에서도 학습을 중단하지 않았던 항일투사들처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출근길을 다그치면서도, 막장길과 로천길을 걸으면서도 학습전투를 벌렸다. 항일의 나날에 창조된 문답식학습과 토론, 론쟁을 비롯한 여러가지 학습방법들이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활발히 벌어지고있다.

세차게 휘몰아치는 혁명적학습열풍속에 전례없는 성과들이 이룩되였다.

북창의 전력생산자들이 전투이전보다 많은 전력을 증산하고 황철의 로동계급이 선철생산목표를 매일 넘쳐 수행하고있는것도, 김정숙평양제사공장의 근로자들이 3월 １０일현재 상반년인민경제계획을 수행한것도 혁명적학습열풍속에 이룩된 기적이다.

지난 30여일동안에 대고조적전장들마다에서 창조된 전례없는 기적과 위훈들은 당조직들이 우리 당의 공격적인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기 위한 학습열풍을 드세게 일으켜 천만의 정신력을 흥폭발시키는 과정에 이룩된 사상의 결정체라고 긍지높이 총화할수 있다.

모든 당조직들은 사상을 제일무기, 유일한 무기로 틀어쥐고 전당과 온 사회에 혁명적학습열풍을 더욱 세차게 일으켜 일심단결의 위력, 전례없는 창조의 위력을 남김없이 과시하도록 함으로써 당 제7차대회를 향한 충정의 ７０일전투의 고지우에 승리의 기발을 휘날려야 할것이다.

본사기자 김 승 표

승리는 언제나 우리의것

침략자들의 무분별한 전쟁광증을 단호히 쳐갈기며 려명거리가 일떠서게 된다는 격동적인 소식은 날이 갈수록 만사람의 가슴마다에 승리에 대한 확신을 더욱더 가다듬게 하고있다.

날로 비약하는 주체적건축예술이 응축된 희한한 거리의 음자를 가슴에 안아볼수록 잊지 못할 하나의 이야기가 되새겨진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억척불변의 혁명신념과 필승의 기상을 안고 백두의 눈보라마냥 폭풍쳐 내달리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앞길을 가로막을 힘은 이 세상에 없으며 최후의 승리는 반드시 우리의것입니다.》

만수대예술극장앞에는 사람들 누구나 즐겨 찾는 분수공원이 있다.

동해의 명산 금강산이 통째로 옮겨진듯 하여, 우아한 춤동작을 펼쳐보이는 장식조각에 취하여 분수공원의 정서를 맛보는 우리의 생각은 깊어진다. 인민의 행복이 무르녹는 이렇듯 훌륭한 분수공원이 어떤 환경속에서 꾸려지게 되였던가.

남강도 미제가 관문점사건을 도발하여 이 땅에 전쟁의 검은구름을 몰아왔을 때였다.

평시도 아닌 준엄한 시기에 공원을 건설한다는것이 합당한 일이겠는가. 수도의 한복판에 우리 나라 금수강산을 통째로 옮겨놓아야 한다고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가르치심을 받들고 인공산을 만들 자연석을 얻기 위하여 금강산의 외금강에 나가있던 창작가들은 이런 생각을 하며 평양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자기들의 생각이 짧았음을 창작가들은 곧 알게 되였다.

일군들로부터 창작가들을 철수시켰다는 보고를 받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단호히 선언하시였다.

그게 어떤 사업이라고 중단시켰는가, 순간도 멈춰세워서는 안된다, 우리 인민은 우리가 일떠세운 그 희한한 락원의 강산을 보면서 수령님의 하늘같은 은덕을 가슴속깊이 새겨넣을것이며 이 고마운 제도, 이 행복을 끝까지 사수할 투지를 더욱 튼튼히 가다듬을것이다라고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우렁우렁하신 음성.

하여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알수 없는 그 긴장한 속에서도 추호의 흔들림없는 위대한 장군님의 의지에 떠받들려 우리 인민을 위해 또 하나의 훌륭한 분수공원이 꾸려지게 되였다.

《응당 총포탄이 전선으로 실려가야 할 그때에 전국각지에서 평양으로 진귀한 바위들과 초목들이 실려왔습니다. 그것들을 공원에 옮겨세워가는 우리들의 가슴은 불을 안은듯 뜨거웠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강철의 의지와 담력을 지니신 위대한 령도자를 받들고 혁명하는 우리 인민의 긍지와 행복감이였습니다.》

당시 공사에 참가하였던 한 조각가가 자기의 심정을 그대로 토로한 이 말을 어떻게 무심히 들을수 있겠는가.

전쟁이라는 재난의 난파도가 밀려드는 속에서 마련된 인민의 행복이였다.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질 때 원쑤들의 침략책동은 산산이 부서져나가고 인민이 바라던 모든 리상은 빛나는 현실로 펼쳐진다는것을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실록은 오늘도 끝없이 전하여준다.

승리의 포성이 또다시 울렸다. 려명거리건설선로로 적대세력들의 악랄한 제재압살책동에 준엄한 철추를 내리신 경애하는 원수님,

전쟁의 위험이 떠도는 일촉즉발의 시기에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의 명령으로 조국을 지켜야 할 군인들을 려명거리건설에 파견해주시겠다고 하신 백두령장의 담력과 배짱,

정녕 온 나라의 관심속에 려명거리를 일떠세우도록 용단을 내리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업적을 무슨 말로 다 칭송할수 있으랴.

려명거리건설은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과의 치렬한 대결전이다!

희세의 천출명장이시며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열렬한 호소가 승리의 신심을 백배해주며 뜨겁게 들려온다.

우리는 승리한 싸움을 하고있다. 새로 일떠선 려명거리에서 살게 될 인민의 행복넘친 웃음소리가 벌써부터 들려온다.

우리는 여기 만수대예술극장앞의 분수공원에서 우리 조국의 위대한 승리를, 사회주의문명국의 휘황한 래일을 안아본다. 우리는 이겼다!

본사기자 림 정 호

박 봉 주 총 리

황해제철련합기업소,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 현지료해

박봉주내각총리가 황해제철련합기업소와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를 현지에서 료해하였다.

총리는 70일전투의 철야진군에서 날에날마다 기적과 위훈을 창조하고있는 황해제철련합기업소를 돌아보았다.

위대한 천출명장을 모시여 우리 조국의 막강한 국력이 세상에 높이 떨쳐지고있는 때에 황철의 로동계급은 당 제7차대회를 높은 정치적열의와 전례없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할 일념밑에 자강력제일주의기치를 높이 들고 주체철생산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고있다.

총리는 기업소의 여러곳을 돌아보면서 주체철생산에서 련이어 최고기록을 돌파하고있는 로동계급의 투쟁을 고무해주었다.

이어 진행된 협의회에서는 혁명의 준엄한 년대기마다 강철로 우리 당을 절사옹위하여온 전세대들의 영웅적투쟁정신을 따라배워 당중앙을 더 높은 강철중산성과로 받들어나갈데 대하여서와 강철생산을 더욱 늘이기 위한 문제들이 토의되였다.

한편 총리는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를 돌아보면서 자력자강의 정신으로 철강재생산을 적극 다그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박봉주총리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 현지료해

【조선중앙통신】

사상교양사업을 실속있게

은률광산 초급당위원회에서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깊이 체득시키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해나가고있다.

이곳 당조직에서는 당세포와 근로단체조직들에서 위대성교양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운데 기초하여 독보와 해설모임 등을 정상적으로 진행해나가도록 사업을 짜고들고있다.

이와 함께 일군들과 선동원들이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에 대한 도서들과 당보에 실리는 기사들에 담겨진 내용을 누구보다 깊이 새겨안고 들끓는 막장들에 나가 화선식정치사업을 적극 벌려나가도록 떠밀어주고있다.

얼마전 ７０일전투로 들끓고있는 현장에 나간 한 일군은 작업의 쉴참에 광산에 깃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에 대하여 감명깊게 이야기해주면서 오늘의 총진군길에서 영예로운 승리자가 되자고 열렬히 호소하였다.

로농통신원 심 문 섭

사상을 혁명의 원동력으로 삼고 5대교양에 화력을 집중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사상의 강자들로 키우라! (공동구호에서)

70일전투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

순천지구청년탄광련합기업소 당위원회 일군들의 사업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상교양사업은 하나를 하여도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도록 실속있게 하여야 합니다.》

순천지구청년탄광련합기업소 당위원회에서 70일전투목표에 반영할 항목을 놓고 론의를 할 때였다. 일부 일군들은 련합기업소의 임무로 보아 석탄생산목표를 주요항목으로 놓는것은 응당한 일이라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책임비서 정몽필동무의 생각은 달랐다. 70일전투에서 물론 생산실적을 올리는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중요한것은 일군들과 당원들과 로동자들을 우리 당의 굴함없는 공격적인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시키는 사상사업이라고 보았던것이다.

이렇게 되여 5대교양이 70일전투목표의 또 하나의 주요항목으로 세워지게 되였다. 하지만 목표가 곧 실천으로 되는것은 아니였다. 70일전투의 첫 아전군이 벌어지고있는 실정에서 교양시간을 따로 낸다는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였다. 그렇다고 긴장한 전투가 벌어지고있는 때에 일군들을 자주 모여놓고 교양사업을 한다는것도 전투분위기에 맞지 않았다.

어느 시간을 리용하여 5대교양을 어떻게 하겠는가 하는것이 문제였다.

당위원회일군들은 진지한 토의끝에 주마다 진행되는 학습강의시간은 물론 모든 계기와 공정을 리용하여 학습반단위로 하자는 합의에 도달하게 되였다.

당위원회는 생산단위의 실정에 맞게 5대교양에서 학습강사들의 역할을 중시하였다. 그들만 잘 준비시킨다면 때와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5대교양을 집중적으로, 기동적으로 할수 있다고 보았던것이다.

문제로 된것은 학습강사들의 수준과 능력이 서로 다른것이였다.

강사들의 수준이자 교양사업의 실효이다. 당위원회는 이런 관점에서 그들의 수준을 높여주기 위한 사업을 위원회적인 사업으로 밀고나갔다.

지난 2월말에 학습강사의 날을 통하여 신념교양과 관련한 안내강의를 조직한것도 이런 의도에서였다.

안내강의를 통해 학습강사들은 현시기 신념교양을 강화하는것이 왜 중요하며 신념교양에서 모를 박아야 할 문제가 무엇인가를 더 잘 알게 되였다. 당위원회는 이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학습강사 김형국동무를 시범강의에 출연시켰다. 이것을 계기로 학습강사들이 5대교양의 능수들로 준비된것은 두말할것도 없다. 단위실정에 맞게 신념교양을 구체화하기 위한 방법론도 배우게 되였다. 안내강의가 끝난 후 학습강사들은 현장에 내려갔다.

조건이 불리하고 과업이 방대할수록 5대교양은 한시도 늦추지 말고 강도높이 벌려야 한다는 관점밑에 막장을 비롯한 현장들에서 학습강사들이 진행하는 5대교양은 대중의 심장속에 혁명적수령관과 열렬한 조국애, 불굴의 신념과 투철한 계급의식, 고상한 도덕관을 억척같이 쪼아박는 사상의 정대, 마치와 같았다.

당위원회는 5대교양열풍을 일으키기 위한 사업을 본보기단위를 창조하고 일반화하는 방법으로 밀고나갔다.

본보기단위를 한개 단위가 아니라 여러개 단위로 정한것이 특징적이다. 본보기단위가 많으면 짧은 기간에 모든 단위를 본보기단위로 만들수 있다고 보았던것이다. 이렇게 되여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실과 연혁소개실을 비롯한 교양거점을 통한 5대교양을 실속있게 하고있는 2.8직동청년탄광과 위대성교양을 기본으로 5대교양을 참신하게 벌려나가고있는 령대탄광이 본보기단위로 정해졌다.

당위원회 비서 한정균, 부부장 홍금희동무를 비롯한 선전선동부 일군들은 본보기단위들에서 좋은 경험을 창조하기 위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설계하고 내밀었다.

일군들의 관심속에 이 사업이 벌어진지 얼마후 령대탄광에 5대교양과 관련한 150여건의 새로운 자료들이 갖추어지게 되였다. 그중에는 30여건의 혹화련짐물도 있다. 당위원회는 혹화련짐물들을 기업소안의 모든 당조직들에도 내려보내주었다. 풍부한 자료들은 련합기업소안의 모든 당조직들에서 5대교양을 참신하게 벌려나갈수 있게 한 귀중한 밑천으로 되였다.

당위원회 선전선동부에서는 당원들과 로동자들속에서 반제계급교양의 열도를 더욱 높여나가고있는 령대탄광 초급당위원회 일군들의 경험을 일반화하기 위한 보여주기사업을 조직하였다. 련합기업소안의 당일군들과 200여명의 학습강사들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된 보여주기사업은 첫시작부터 관심을 끌었다.

보여주기사업이 끝난 후 자기 단위에 나간 당일군들과 학습강사들은 일군들과 당원들, 로동자들을 반제계급의식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계급교양사업을 더욱 참신하게 벌려나갔다. 그것은 높은 생산실적으로 이어졌다.

2.8직동청년탄광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이 탄광이 생긴이래 최고실적을 돌파하는 기적을 창조해나갈 때 천성청년탄광과 령대탄광에서도 최근년간에 있어본적이 없는 높은 생산실적을 기록하며 전례없는 혁신을 일으켜나갔다.

5대교양을 70일전투목표의 주요항목으로 삼고 일군들과 당원들과 로동자들을 사상과 신념의 강자들로 억세게 키워나가고있는 당위원회일군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안아온 결실이였다.

본사기자 손 영 희

백암군당위원회 일군들의 사업에서

기적창조의 열쇠

백암군이 충정의 70일전투에서 전례없는 성과를 거두고있는 근본비결은 군당위원회의 참신한 사상사업에 있다.

군당위원회가 5대교양을 주선으로 틀어쥐고 선전선동력량과 수단을 총동원, 총집중하여 대중을 사상과 신념의 강자, 자강력의 소유자로 튼튼히 준비시켜 그들의 정신력이 최대로 발휘되게 한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위대성교양과 김정일애국주의교양, 신념교양, 반제계급교양, 도덕교양을 강화하여 모든 당원들과 군인들, 근로자들을 선군혁명투사들로 튼튼히 준비시키며 조국보위와 강성국가건설의 전투장마다에서 애국충정의 불길, 창조와 혁신의 불바람이 세차게 나래치게 하여야 합니다.》

군당위원회에서는 우선 군안의 모든 당, 근로단체, 행정일군들과 초급일군들, 당원들까지도 사상과 교양사업의 주력으로 내세웠다.

이 사업에서 군당책임일군이 앞장에 섰다. 얼마전 옥천, 광덕농장을 비롯하여 덕포지구의 일부 농장들에서 자급비료생산 및 반출실적이 떨어지고있을 때였다. 한밤중에 도당위원회에서 진행한 회의에 참가하였다가 군으로 돌아온 군당책임비서 고재길동무는 잠시의 휴식도 없이 또다시 수십리 생눈길을 헤치며 광덕농장으로 달려나갔다. 그는 오래동안 알배온 한 농업근로자의 집에 찾아가 마치 친혈육과 집안일을 의논하듯이 갈자농사에서 걸린 문제들을 툭 털어놓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면서 날이 밝도록 지력을 높이기 위한 방도를 토의하였다.

다음날 아침에는 농업근로자들앞에서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 시기까지 감자농사때문에 그토록 마음쓰시던 어버이장군님의 애국헌신의 한평생을 가슴뜨겁게 새겨주면서 장군님의 유훈관철에로 대중을 불러일으켰다.

군당책임일군의 이런 사업기풍은 모든 일군들의 거울로 되였다.

최광복, 지정남, 리주필, 최수범동무를 비롯한 군안의 당, 근로단체, 행정일군들은 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의 심장에 불을 다는 불씨가 되고 정신력을 폭발시키는 뢰관이 되여 그들을 사상과 신념의 강자들로 준비시켰다.

군당위원회에서는 또한 주판부서인 선전선동부가 통이 크게 일판을 벌려 온 군을 5대교양마당으로 전환시키도록 하였다. 방송선전차와 직관물을 통한 교양, 연혁소개실참관을 통한 교양 등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진행되고있는 5대교양은 70일전투에 떨쳐나선 군안의 일군들과 인민들의 정신력을 총폭발시켜 전투장마다에서 기적과 혁신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게 하였다.

여러 농장들에서 지난해보다 거름생산과 반출을 보름이나 앞당겨 끝내는 성과가 이룩되였다. 군안의 피복공장, 종이공장, 목재일용품공장을 비롯하여 지방산업공장들에서 생산정상화의 동음이 높이 울려퍼지고 현대화가 빠른 속도로 추진되고 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목표가 방대하고 조건이 아무리 어려워도 5대교양에 화력을 집중하여 사상사업을 공세적으로 벌린다면 대중의 무궁무진한 정신력과 창조력이 총폭발되여 전례없는 기적을 창조할수 있다는 것이다.

본사기자 채 인 철

신념의 노래로 시작된 전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적인 노래는 대중을 교양하고 투쟁에로 불러일으키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난 3월초 어느날 아침이였다. 원산군민발전소 뚜길굴건설 1려단 이천군중대앞에는 긴급전투과제가 나섰다. 수십m구간의 물길굴바닥까지와 거기에서 나오는 많은 량의 비력을 내오는것이였다. 그 운반거리는 1 000여m인데 그것도 가슴치는 물속에서 진행해야 하는 그야말로 어려운 과제였다.

돌격대원들의 얼굴에는 긴장한 빛이 어리였다. 바로 이러한 때 중대정치지도원 원금철동무가 소대별대렬합창경연을 진행하는것으로 전투를 시작하자는 안을 내놓자 중대의 분위기는 대번에 달라졌다. 이렇게 되여 전투의 시작과 함께 소대별대렬합창경연이 진행되는 류다른 풍경이 펼쳐지게 되였다.

규모있게 렬을 지은 돌격대원들이 《가리라 백두산으로》를 비롯한 혁명적인 노래들을 부르며 행진해가는 모습은 참으로 기백이 넘쳤다. 그 걸음으로 그들은 막장으로 들어가 가슴까지 차오르는 물속으로 서슴없이 뛰여들었다. 함마전과 미대전이 벌어졌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손은 까드라들고 한다하는 전투원들도 몸을 가누기 힘들어하였다.

《동무들, 신념의 노래를 부르자!》

막장에 울리는 중대장 리성봉동무의 힘찬 웨침소리에 돌격대원들은 노래합창으로 화답해나섰다. 교대성원들도 혁명의 노래, 신념의 노래를 높이 부르며 전투에 합세하였다. 시련과 난관앞에 주저를 모르고 언제나 승리에 대한 락관에 넘쳐 삶을 값높이 빛내여가려는 그들의 억센 신념과 의지의 거세찬 분출이였다.

노래합창으로 시작되고 노래속에 진행된 전투는 기적을 안아왔다. 그처럼 불리한 조건에서도 맡겨진 전투과제를 앞당겨 수행하게 되였던것이다.

이 하나의 사실을 통해서도 우리는 노래를 통한 신념교양사업의 생활력이 얼마나 큰가를 느끼게 된다.

본사기자 장 철 범

투쟁과 생활이 있는 곳 어디에서나

10분간의 쉴참에도

회령고려약공장 생산전투장에 휴식시간이 왔다. 종업원들과 마주앉은 초급당비서 김은정동무가 한 녀성로동자에게 어떤 노래를 좋아하는가고 물었다.

《인민사랑의 노래》라는 대답을 들은 초급당일군은 자기도 그 노래를 사랑한다고, 우리 공장을 찾으시였던 장군님생각에 가슴이 젖어든다고 말하면서 《인민사랑의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노래는 종업원들의 합창으로 번져졌다. 모두의 가슴마다에는 어버이장군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과 장군님의 유훈을 빛나게 관철해갈 열의가 넘쳐흘렀다.

그 마음이 그대로 실천으로 이어져 그날계획을 2배로 넘쳐 수행하는 성과를 안아왔다.

휴식시간은 불과 10분!

그러나 이 짧은 시간을 잘 리용한 김정일애국주의교양사업의 실효는 이렇듯 컸다.

수첩에 새긴 글발

류성룡담수산사업소 초급당비서 리길용동무는 전투가 한창이던 어느날 배수리실적이 높지 못한 어느 한 작업반 종업원들을 전투장가까이에 있는 청사록도로 이끌었다. 그가 멈춰선 곳은 반제계급교양판앞이였다. 70일전투를 며칠 앞두고 후두수술을 받은 그는 말을 할수 없는것이 안타까왔다. 그는 손을 들어 미일침략자들과 계급적원쑤들의 야수적만행을 보여주는 계급교양자료들을 하나하나 가리켰다. 그리고는 품고다니던 수첩에 이런 글을 써서 작업반원들에게 보여주었다.

《지키면 승리, 버리면 죽음》

종업원들은 수첩의 짧은 그 글발에서 열백마디를 대신하는 초급당일군의 심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종업원들은 그 글발을 심장에 쪼아박고 분연히 일떠서 다음날부터 높은 실적을 기록했다.

신념을 굳혀준 영화실효모임

영화가 끝나고 관람석에 불이 켜졌다. 무대에 나선 룡성기계련합기업소 2제관직장 직장장의 격정넘친 목소리가 장내를 흔들었다.

《종파분자들의 암해책동을 쳐갈겨버리며 당정책을 절사관철한 전세대가 70일전투에 떨쳐나선 우리에게 묻는것만 같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어떻게 받들고있는가고 말입니다. …》

뒤이어 무대에 나선 열처리직장의 로동자도 절절하게 토로하였다. 저 하나만을 위해 살아온 지난날과 결별하고 70일전투에서 영예로운 승리자가 되겠다고.

투철한 신념이 없이 당정책결사관철의 정신이 발휘될수 없다. 전세대들이 지녔던 충실성과 신념의 전통을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심장에 새겨주기 위하여 련합기업소당위원회는 70일전투일총화뒤끝에 예술영화 《이 세상 끝까지》에 대한 실효모임을 조직하였던것이다.

그 실효는 컸다. 2제관직장에서는 필요한 자재들과 백수십kg의 용접봉을 자체로 해결하면서 대상설비생산에서 혁신을 일으켰다.

3월말까지로 계획하였던 장진강2호발전소 수차날개생산은 3월 9일까지 전부 끝났다.

당위원회가 70일전투분위기에 맞게 신념교양을 강화한 결과라고도 말할수 있다.

본사기자 김 향 란

실천투쟁은 중요한 교양과정

송한과수농장 초급당위원회에서

어느덧 저녁어스름이 깃들기 시작하였다.

전투총화를 앞둔 그 시각 송한과수농장 초급당비서 박광희동무의 마음은 무거웠다. 하루 사업을 돌이켜볼수록 가책되는바가 컸던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김정일애국주의에 대한 교양사업을 실천과 결부하여 실속있게 하여야 합니다.》

그날 초급당위원회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현지지도표식비와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실, 영생탑주변에 갖가지 나무들을 심기로 계획하고 작업반별로 구체적인 분담을 주었다.

모두들 승벽내기로 불이 번쩍나게 일손을 다그쳤다. 흐뭇한 마음으로 작업현장을 돌아보던 초급당비서는 제3작업반이 파놓은 구뎅이앞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아무래도 깊이가 제대로 보장된것 같지 않았다. 재여보니 눈짐작이 틀리지 않았다.

초급당비서는 곧 농장초급일군들을 그 자리에 모이게 하였다. 나무심기를 기술규정의 요구대로 하지 못하는 편향이 다른 작업반들에서도 나타날수 있었기때문이였다. 아닌게 아니라 제3작업반이 담당한 구간을 돌아보면서 얼굴을 붉히는 작업반장들이 있었다.

제때에 대책을 세워 편향들을 바로잡았으나 초급당비서의 마음은 개운치 않았다. 나무심기에서 나타난 결함이 거친 일본새에 기인되는 문제로만 여겨지지 않았다. 한그루의 나무를 심어도 정성을 기울이는 애국의 마음이 부족한데 기본원인이 있다고 보았다.

총화모임에서 초급당비서는 절절히 말하였다. 김정일애국주의는 결코 추상적인것이 아니다. 누가 보건말건 맡은 일을 량심적으로, 책임적으로 하는것이 다름아닌 애국이다. 오늘 충정의 전투기록장에 량심의 기록을 멋멋이 새길수 있는가를 모두가 돌이켜보자. …

그의 이야기는 농장초급일군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총화가 끝나자 농장초급일군들은 나무심기작업이 진행된 곳으로 향하였다. 심은 나무들에 버팀대들을 튼튼히 세워주고 둘레에 동그란 돌들을 알알이 골라 깔아놓았다. 이어 나무마다에 명찰까지 달아놓고나니 하늘에 별들이 총총했다.

그날 초급당위원회는 김정일애국주의교양은 실천투쟁과 밀접히 결부시켜 진행할 때 응당한 실효를 거둘수 있다는 교훈을 찾게 되였다.

이튿날 초급당위원회에서는 작업반별사회주의경쟁요강에 질문제를 중요한 평가항목으로 새로 반영하였다. 그것은 농업근로자들로 하여금 맡은 일을 량심적으로, 책임적으로 하게 하는데서 큰 작용을 하였다. 과일보관고건설장의 돌격대원들속에서 갓 쩍어놓은 블로크가 밤새 얼지 않도록 비닐박막을 씌워놓고 되근하는 미풍이 발휘되고 제1, 2작업반원들은 과일나무들에 물거름을 충분히 주기 위해 점심시간마저 바쳐가며 애썼다. 초급당위원회에서는 이러한 긍정적인 소행들을 여러 계기를 통해 높이 내세워줌으로써 김정일애국주의열풍을 더욱 고조시켜나갔다.

실천투쟁은 하나의 중요한 애국주의교양과정!

이것이 이곳 초급당위원회사업을 통해 찾게 되는 귀중한 교훈이다.

본사기자 김 순 영

힘있는 정치사업으로 70일전투에서 위훈을 창조하도록 생산자대중을 고무추동하고있다. —김책공기기계공장에서— 본사기자 김 진 명 찍음

두만강기슭의 주타격전방에 애국의 열정 나래친다

함경북도안의 여러 시, 군을 돌아보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농업근로자들은 사회주의수호전의 제1제대 제1선참호에 서있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분발하여 농업생산에서 전변을 일으켜야 합니다.》

춘분도 지나간 3월 하순이건만 북변의 산발들에는 아직도 흰눈이 쌓여있었다. 하지만 두만강기슭의 전야를 따라 걷고 또 걷는 우리의 가슴은 달아올랐다.

죽어도 살아도 내 나라, 내 민족을 위하여 만난을 헤치며 싸워 승리한 항일혁명선렬들의 고귀한 넋, 붉은 피가 그 어디보다 진하게 슴배인 력사의 땅, 투사들의 필승의 신념, 불굴의 기개를 그대로 이어안고 자강력제일주의기치높이 70일전투의 첫아전군을 다그치는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로 하여 두만강기슭의 주타격전방에서는 봄의 서곡, 대승전고의 서곡이 장엄하게 울려퍼지고있었다.

우리는 회령땅의 주인들이다

우리가 회령시 창효협동농장에 도착하였을 때는 이른아침이였다. 포전에서 우리와 만난 판리위원장 염성희동무는 지금 모판만들기가 한창이라고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다수확의 근본담보는 뭐니뭐니해도 튼튼한 모기르기에 있다. 그런데 지난해에 일부 벼모판에서의 실적이 좋지 않았다. 70일전투목표를 세우면 그때 농장일군들은 다시금 가슴치며 돌이켜보았다.

이 땅이 어떤 땅인가.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의 넋원까지 합쳐 한줌 거름이 되여서라도 기름지워야 할 우리의 삶불이, 피땅이가 아닌가.

자기 땅에 대한 남다른 애착은 주인들의 가슴속에 고향땅을 더 훌륭하게 가꾸어갈 비상한 각오와 투지를 백배해주었다.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돌려보니 농장원모두가 떨쳐나 맹습피해를 막고 모를 튼튼히 기르기 위해 모판자리에 흙을 날라다 펴주며 두둑을 지어주고있었다. 눈석임물을 모두 잡아 리용하기 위한 보막이공사를 힘있게 벌려 지난해에 비해 2.5배 많은 물을 확보하고 2배로 높이 세운 거름실이내기전투목표도 10일이나 앞당겨 끝냈다는 이야기.

진정 오늘의 70일전투에서 회령땅의 참된 주인의 본분을 다해나가려는 그들의 일유심은 끝이 없었다.

우리는 이어 증산의 동음높은 시농기계작업소에 들어섰다. 작업소일군은 우리앞에 70일전투기록장을 내놓았다. 지난 시기 보름이상 걸리던 벼종합탈곡기를 비롯한 농기계생산을 한주일동안에 결속, 70일전투가 시작되여 한달 남짓한 기간에 전투목표의 70%이상을 해제낀 일군들과 종업원들…

자기 힘, 자기 자원으로!

회령시를 떠난 우리는 온성군을 향하여 굽이굽이 200여리길을 달리고 또 달렸다. 질좋은 거름이 듬뿍듬뿍 실려나간 포전을 바라보느라니 가슴이 흐뭇해졌다. 군의 한 일군이 더 큰 자랑은 군유기질복합비료공장에 있다고 하면서 우리를 그곳으로 이끌었다.

종업원들과 함께 작업을 진행하던 지배인 최응일동무가 지난해에 비해 1.5배로 높이 세운 고농도후민산비료생산계획을 한주일 앞당겨 끝냈다고 자랑하며 그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군에서는 이미 여러해전부터 자기 지방에 흔한 풍화탄으로 고농도후민산비료를 만들어 리용하고있었다. 이 비료로 종자처리를 진행하니 싹틔우기률이 10%이상 높아지고 싹트는 기일도 2~3일이나 앞당겨졌으며 초기생육에도 좋은 영향을 주었다고 한다. 이런 경험에 토대하여 군에서는 생산계획을 종전보다 더 높이 세웠는데 특히 자기의 자원에 의거하는 문제에 특별히 중점을 박고 실천해나가고있다는것이였다.

금강약돌대신 군에 있는 응회암을 리용하고있는 사실을 놓고서도 잘 알수 있었다. 군의 일군들은 자기의것을 귀중히 여겨야 한다는 자각을 안고 금강약돌을 대신할수 있는 원료를 찾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 과정에 찾아낸 응회암이 철, 망간 등 여러 미량원소함량은 금강약돌에 못지 않고 칼시움성분은 더 많다는것을 알게 되였을 때 모두가 무릎을 치며 다시금 깨달았다고 한다.

자기의것을 살리고 끝없이 빛내여나가려는 각오와 의지이자 자강력의 높이라는것을.

하기에 70일전투목표에 소석회대신 자기 지방에 흔한 린회토를 토양개량제로 리용하는 문제를 쪼아박고 원료확보를 계획보다 한주일이상 앞당겨 끝낸데 이어 토양개량사업을 와닥닥 해제꼈다니 이 또한 얼마나 혁신적인 성과인가.

기쁜 마음으로 공장을 나선 우리는 룡남협동농장으로 향하였다. 농장에서 3대혁명소조원들과 힘을 합쳐 소배설물발효퇴비를 생산리용하고있다는 동행한 일군의 이야기에 호기심이 부쩍 동했기때문이였다. 소배설물에 발효균을 섞어 열흘정도 후숙시킨 다음 그것을 밀비료와 잎덧비료로 리용하니 지난해 수확고가 15%이상 높아졌다는 자랑은 들을수록 흐뭇하였다. 올해에는 정보당 1t의 소배설물발효퇴비를 리용할 목표밑에 2배로 높이 세운 원료확보계획을 한주일동안에 다 끝냈다는 이야기 또한 우리 가슴을 벅차게 해주었다.

우리는 군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안아온 더 큰 성과를 그려보며 위세찬 걸음을 이어갔다.

과학농사열풍으로 비약의 돌파구를

《동지들! 이 총을 받아주!》, 우리 혁명의 첫 기슭에서 울린 투사의 웨침이 오늘도 메아리쳐 울리는듯싶은 경원군.

80여리길을 달려온 우리에게 군일군인 허윤호동무가 들려주는 자랑은 한두가지가 아니였다.

안원저수지공사만 놓고보더라도 수백정미능력의 이 저수지공사가 완공되면 안원지구의 수백정보의 밭을 논으로 전환하여 알곡을 더 생산하고 여러개소의 양수장들을 없애여 많은 전기를 절약할수 있다고 했다. 군에서는 70일전투기간에 공사를 기본적으로 끝낼 높은 목표를 세우고 종전에 비해 매일 2.5배이상의 속도로 힘있게 추진시키고있었다. 군적으로 양수설비수리정비를 지난 시기에 비해 한주일 앞당겨 끝낸것도 자랑할만 한 성과였다. 하지만 우리를 보다 기쁘게 한것은 군에 세차게 불어치고있는 과학농사열풍이였다. 오늘의 70일전투는 자력자강의 대진군이며 그 승리의 비결은 과학기술중시에 있다는것을 깊이 명심한 군일군들은 과학농사작전을 빈틈없이 세웠다. 그에 기초하여 영양알모, 영양평상모에 의한 소식재배방법을 토양의 특성과 빛, 온도, 물보장조건에 맞게 정확히 도입하기 위한 작전, 나노뿌리활성제를 리용하여 농작물의 초기생육을 좋게 하고 랭해를 극복하기 위한 작전 등 모든 작전들을 하나하나 차분하게, 정확히 집행해나가고있었다.

우리는 먼저 농포협동농장을 찾았다.

기상관측기지에서 여러가지 온도계들의 눈금을 살펴보며 하나하나 적어나가는 농장원의 모습이 우리의 눈길을 끌었다.

관측일지를 펼쳐보니 매일 6시, 14시, 20시의 대기온도와 일평균, 최고, 최저온도들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여있었다. 일군들의 말에 의하면 4월부터는 땅속 5cm와 10cm의 온도도 매일 3번씩 측정하여 기록하는데 과학농사작전을 세우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것이였다.

판리위원장은 농장에서 모판준비와 함께 륜지별로 토질상태와 빛, 온도, 물보장조건을 조사장악하기 위한 사업에 특별히 큼을 넣고있는데 대해 설명해주었다.

온 나라에 군당가족작업반으로 소문난 읍협동농장 제5작업반과 군인민보안서가족작업반인 후석협동농장 제5작업반을 돌아보면서도 우리는 과학농법을 습득하기 위해 열심히 배우고 학습하며 경험교환운동을 활발히 벌려가는 농장원들의 열띤 모습에 감동을 금할수 없었다.

돌아볼수록 정이 들고 떠나고 싶지 않은 고장이였지만 이 모든 자랑을 이서때리 온 나라에 전하려는 충동이 우리의 발걸음을 재촉하였다.

* *

두만강기슭의 전야를 따라 수백리를 편답하며 우리는 보았다. 70일전투와 더불어 자력자강의 정신력을 만장약한 굳센 신념과 의지의 소유자, 체현자들로 더욱 억세게 준비해가는 주타격전방의 전초병들을.

그리고 확신하였다. 백두의 붉은 혁명정신이 나래치는 사회주의전야에 반드시 대승전고가 높이 울리리라는것을.

본사기자 장 은 영

영농전투를 다그치고있는 길주군 주남협동농장 농장원들 본사기자 찍음

교육조건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전당적, 전국가적, 전인민적인 사업으로

학교일이자 공장일이라는 관점에서

령남배수리공장 일군들과 종업원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후대들을 어떻게 키우는가 하는것은 민족의 흥망과 혁명의 장래와 관련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3월과 10월은 학교지원월간이다.

교육사업을 나라의 흥망을 좌우하는 중대사로 내세우는 당의 뜻을 심장깊이 새겨안은 많은 단위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70일전투로 들끓는 3월에도 교육단위들에 대한 지원사업에 뜨거운 진정을 바쳐가고있다. 그들속에는 령남배수리공장 일군들과 종업원들도 있다.

《솔직히 70일전투로 드바쁜 속에서 그처럼 성의있는 교육지원물자들을 마련하리라고는 생각지 못하였습니다. 그 뜨거운 진정앞에서 저희들은 교육자로서의 본분을 더 깊이 자각하였습니다.》

와우도구역 서해고급중학교 교장 권원주동무의 이야기였다.

령남배수리공장은 말은 혁명과업수행에서도 앞자리를 양보하지 않지만 지난 기간 학교지원사업에서도 남다른 모범을 보인 단위들중의 하나이다. 이들이 이번 70일전투기간에 또다시 보여준 훌륭한 교육지원열의를 통해 우리는 모든 일군들이 교육사업에 대한 옳바른 관점을 가지고 새세기 교육혁명수행에서 조선로동당 제1비서와 발걸음을 같이하여야 하겠다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을 받드는데서 가장 중요한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명백한 대답을 찾게 된다.

3월학교지원월간을 맞으며 령남배수리공장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마련해가지고온 지원물자들은 무려 40여종에 420여점에 달한다. 그중에서도 액정텔레비존과 태양빛전지판들은 학교교원들의 마음을 후덥게 하여주었다. 교육조건개선에 절실히 필요한 설비들이였기때문만이 아니다. 70일전투기간에 중요한 일감을 맡아안고 방대한 목표를 내세운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라는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있는 이들이였기때문이다.

그래서 얼마전 지배인 리대성동무가 새 학년도를 앞두고 도울 일이 없겠는가고 일부러 시간을 내여 학교를 찾았을 때에도 다른 내색을 하지 않았던 학교일군들이였다.

그런데 학교를 돌아보고 아무말없이 떠나갔던 지배인이 종업원들과 함께 새 학년도교수준비에 절실히 필요한 설비들과 지원물자들을 한가득 마련하여 보내주었으니 이들의 마음이 왜 뜨겁지 않았겠는가.

더 큰 놀라움을 자아낸것은 종합목수기계였다. 책걸상은 물론이고 원간한 교구비품들은 얼마든지 자체로 수리하여 리용할수 있게 하는 종합목수기계는 학교의 물질적토대를 튼튼하게 갖추어주기 위해 이들이 얼마나 머리를 쓰고 노력하는가를 말해주는 생동한 실례였다.

《후에 안 일이지만 공장에서는 당조직의 지도밑에 철야전투로 바쁜 속에서도 새 학년도를 앞두고 교육지원물자전시회를 조직하였다고 합니다. 그런 높은 열의속에 마련된것이 바로 종합목수기계를 비롯한 그날의 교육지원물자들이였습니다.》

교마을에 젖은 교장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받은 감흥은 컸다. 결국 문제는 진심이였다. 무슨 일에서나 그러하지만 교육지원사업이야말로 뜨거운 애국심을 바탕으로 하는 진정을 떠나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지난 기간 령남배수리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교육지원사업에서 남다른 모범을 보일수 있은것은 결코 남보다 무엇이 많아서도 아니며 조건과 환경이 좋아서도 아니다. 당의 교육중시사상을 심장으로 접수하고 받들려는 진정이 뜨겁기때문이다.

지난해 3월, 단 하루동안에 진행한 학교건물들에 대한 외장재철하기작업만 놓고보아도 그렇다. 개학날자가 다가오고있었지만 학교건물이 높아 외장재를 칠하지 못하고있다는것을 알게 된 지배인 리대성동무는 당조직과 토론하고 그날로 긴급작업조직을 하였다. 그리하여 어려대의 기중기차 등이 학교로 달려오고 여느때같으면 여러날이 걸려야 하는 어려운 작업이 단 하루동안에 전부 마무리되였다.

그때 새옷을 차려입은 학교건물을 바라보며 교직원, 학생들 모두가 얼마나 기뻐하였던가.

지난해 공장의 자체만방에 뜻하지 않게 생긴 긴급정황으로 겨울용석탄문제가 걸렸을 때에도 공장일군들은 자기 단위가 아니라 학교를 먼저 생각하여 모두를 놀라게 하였다. 공장을 위해 힘들게 구해온 석탄을 학교로 먼저 싣고온 공장자재일군들이 들려주던 이야기를 이들은 오늘도 잊지 못하고있다. 어떻게 구해온 석탄인데 학교에 먼저 주려고 하는가고 처음에는 의점이 없지 않았지만 그 학교에 우리 아이들이 있다고 생각해보라, 그래도 아까울텐가고 묻는 일군들앞에서 저절로 머리가 숙어졌다고 솔직히 터놓던 그들의 진정어린 고백…

그후에는 또 학교의 나무난로를 전부 석탄난로로 개조해주어 교육자들의 마음을 후덥게 해주었던 이들이였다.

교정의 불빛이 꺼져서야 되겠는가고 하면서 가지고온 발동발전기도 공장에서 사무실청사조명보장에 리용하던 설비라는것을 알았을 때 학교교직원들의 고마움은 또 얼마나 컸던가.

당장 마무리해야 할 건설대상이 많아 세멘트가 절실히 필요할 때에도 공장의 일군들은 학교보수에 필요한 량의 세멘트를 뚝 떼여 먼저 보장해주었고 최전운동기구가 필요하다는것을 알았을 때에는 교육사업에 필요한것보다 더 중한 일이 어디에 있겠는가고 하면서 다른 일을 뒤로 미루고 선참으로 해결해주었다.

이런 이야기를 다 하자면 끝이 없다. 명백한것은 이들의 그런 헌신적인 도움이 있었기에 서해고급중학교의 교육자들이 맡은 후대교육사업에 전념하며 좋은 성과들을 거둘수 있었다는것이다.

교육일군들속에서 자주 듣게 되는 후원단체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 어떤 교육일군들은 우리 후원단체자랑으로 신바람이 날 때 어떤 교육일군들은 그런 자랑을 부러움을 안고 듣는것은 무엇때문인가.

령남배수리공장 일군들의 헌신적인 교육지원기풍은 말해주고 있다.

그것은 조건과 능력에 관한 문제이기 전에 우리 일군들의 립장과 태도에 관한 문제이다.

당의 교육중시사상을 진심으로 받들겠다는 사상적각오가 투철하고 후대교육사업은 나라의 흥망을 좌우하는 중대한 애국사업이라는 확고한 관점에서 언제나 자기 사업의 한 부분으로 여기는 일군들이 있는 곳에서는 당이 지켜준 교육지원의 불길이 뚜렷한 생활력을 나타내며 기세차게 타오르는 법이다.

본사기자 강 진 형

꿈을 싣고 달리는 통학뻐스

연산군 대군리에는 100여명의 학생들을 위한 통학뻐스가 있다.

아침등교길에도, 하루 수업이 끝난 후에도 학생들을 싣고 달리는 통학뻐스를 산골마을사람들은 깊은 감동에 잠겨 바라보군 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국의 미래인 후대들의 밝고 명랑한 모습에 바로 우리의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으며 혁명하는 보람이 있습니다.》

매일 10여리 등교길을 오고가는 통학뻐스를 놓고 이곳 사람들은 우리의 사회주의제도가 제일이라고 한결같이 말하고있다.

대군리 11인민반에 사는 박금숙녀성은 자식들의 등교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새벽에 부엌에 나서던 일이 옛말이 되였다고, 이제는 자식들의 등교로 마음쓰던 일이 없어졌다고 자기 심정을 터놓았고 21인민반에 사는 곽은실녀성은 소학반에 다니는 아들을 늘 자전거에 태우고 아침 일찍 기차로 가던 일을 돌이켜보며 당의 후대사랑을 받들어가는 참된 애국자, 진짜배기일군들의 헌신적인 모습에서 우리 당의 한없는 고마움을 새겨안게 되였다고 진정을 토로하였다.

통학뻐스와 더불어 많은 일화들이 생겨나고있다.

지난 시기에는 아침에 부모들이 독촉해서야 잠자리에서 일어나던 자녀들이 이제는 통학뻐스를 남먼저 타려고 일찌기 일어나 어머니들의 아침밥준비를 재촉한다는 이야기, 뻐스안에서 모두가 합창을 하며 학교로 가는데 참 재미있다는 아이들의 목소리, 언제인가 한 학생이 점심밥을 잊고 등교했다는것을 알고 운전사가 자기의 점심밥을 덜어주었다는 사실 등 가지가지 이야기들이 날마다 꽃펴나 사랑과 정으로 산골마을사람들의 가슴을 뜨겁게 덥혀주고있다.

통학뻐스와 더불어 아이들의 즐거운 웃음소리, 행복의 노래소리는 끝없이 울려퍼지고있다.

연산군 대군협동농장 농장원인 강춘미동무는 자식들이 통학뻐스를 타면서부터 학교생활에 더욱 재미를 붙이고있는데 소학반에 다니는 딸 일심이는 공부를 잘해서 앞날의 교원이 되겠다고 한다며 자랑을 터놓았다. 자식들의 꿈이 나날이 커가니 부모들의 얼굴에도 늘 웃음꽃이 피여있다.

아이들의 기쁨넘친 노래소리와 아름다운 래일의 꿈을 함께 싣고 달리는 산골마을의 통학뻐스!

연산군 대군교급중학교 교장 서광일동무도 통학뻐스로 하여 학생들의 출석률도 높아지고 학습열의도 더욱 높아졌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후대들을 위한 일에 아낌없이 바쳐가는 일군들의 뜨거운 지성이 언제나 우리 교육자들과 학부형들의 가슴을 울려주고있습니다.》

등교길이 멀어 학생들에게 불편을 주고있다는것을 알고 이 지역에 통학뻐스를 내오기 위해 애쓴 금강지도국의 책임일군들과 구영호, 박인남, 리백산동무들, 기업관리를 짜고들면서 통학뻐스의 정상운행을 보장해가고있는 황준섭동무와 운전사 홍준하동무를 비롯한 국아래단위 종업원들의 지성은 참으로 감동깊은것이였다.

할 일도 많고 부족한것도 한두가지가 아닌 이들이지만 후대들을 위해 통학뻐스운영을 위한 연유도 우선적으로 보장해주고 교육사업을 위해 많은 량의 세멘트며 콤푸레를 비롯한 현대적인 교육설비들도 학교에 보내준 사실은 오늘도 교육자들과 학부형들모두가 잊지 않고있다.

올해 3월학교지원월간을 맞으며 이들은 또다시 교육의 현대화, 정보화에 필요한 설비들을 안고 학교를 찾았다.

우리 나라를 교육의 나라, 인재강국으로 빛내이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실천으로 받들어가는 이런 일군들이 있어 그 어디에서나 조국의 미래를 위해 헌신하는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꽃펴나고있는것이다. 이 땅에 넘치는 후대사랑의 노래 높이 울리며 통학뻐스는 오늘도 아이들의 꿈을 싣고 쉬임없이 달리고있다.

본사기자 공 로 혁

모두가 학부형

함흥시 회상구역 수동고급중학교에서 만난 사람들

함흥시내를 벗어나 약 50리쯤 가느라면 산골풍경에 어울리게 일떠선 2층짜리 교사를 보게 된다. 함흥시 회상구역 수동고급중학교이다. 다기능화된 교실들에서 울려나오는 학생들의 웃음소리, 명랑한 노래소리, 한겨울에도 더운물을 정상적으로 리용할수 있게 설치된 태양열물가열기, 자연환경과 잘 어울리게 꾸려진 야외수영장이며 지리학습터…

얼마전 이 학교를 찾았던 우리는 교육조건과 환경을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일신시키기 위해 기울인 수동협동농장 일군들과 농장원들을 비롯한 학부형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후대교육을 위하여서는 아낄것이 없습니다.》

노을이 곱게 물드는 학교의 교정길로 말없이 걸고있는 두 사람이 있었다. 수동협동농장 리당비서 심일섭동무와 관리위원장 강미선동무였다.

《관심을 돌리느라 했지만 아직도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교실들을 더 잘 꾸리지면 해야 할 일이 많군요.》

리당비서의 말에 녀성관리위원장의 얼굴에도 자책감이 어리였다.

《산골학교라고 자그마한 성과에 쉽게 만족했던 제 잘못이 큽니다.》

두 일군은 학교를 더 잘 꾸려주기 위해 오래도록 진지하게 토론하였다. 그리하여 콤퓨터와 태양빛전지판을 비롯하여 교육의 현대화실현에 필요한 설비들을 갖추어주기 위한 대책이 세워졌다.

그로부터 며칠후, 뜻밖에도 농장관리위원회로는 주변의 한 단위 일군인 하은영동무가 종업원들과 함께 찾아왔다. 놀랍게도 농장에서 구입하려고 하였던 교육현대화에 필요한 설비들을 한가득 싣고, 영문을 몰라하는 농장일군들에게 그가 하는 말은 참으로 충격적이였다.

《머칠전 학교에 갔다가 농장에서 교육의 현대화에 필요한 설비를 구해주려고 애쓴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학교에서는 우리 단위 종업원들의 자녀들도 공부하는데 그게 어떻게 농장의 일만이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들이 안고온 휴대용콤퓨터와 액정텔레비존, 투영기, 태양빛전지판, 축전지…

그 하나하나의 설비들도 소중하였지만 교육사업을 자기 일처럼 여기는 그 진정이야말로 얼마나 아름다운것인가.

농장일군들은 하은영동무의 손을 뜨겁게 마주잡았다.

《정말 우린 모두 학부형인셈입니다.》

글 본사기자 김 경 철
사진 본사기자 김 광 혁

고향땅의 더 좋은 래일을 위하여

강남군 영진협동농장 일군들

강남군 영진리 소재지에 들어서면 류달리 눈길을 끄는 3층짜리 건물이 있다.

시내학교 부럽지 않게 색타일을 붙이고 색철판기와를 씌운 그 건물이 바로 이곳 일군들과 농장원들이 고향땅의 래일을 떠메고나갈 후대들을 위해 많은 품을 들여 꾸려준 영진고급중학교이다.

하지만 이들은 후대들을 위한 일에서는 만족을 모른다.

농장에서는 총정의 70일전투기간 해야 할 일감이 방대하지만 학교를 최상의 수준에서 꾸려주기 위한 사업을 첫자리에 놓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학생들은 나라의 귀중한 보배들인것만큼 그들을 위하여서는 아무것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몇해전 당의 령도업적이 깃든 영진리의 당일군으로 배치된 윤정섭동무는 교장 리승규동무와 함께 영진고급중학교를 몇번이나 돌아보고나서 일군들의 협의회를 조직하였다. 학교를 개건하자면 많은 품을 들여야 했지만 대중을 발동하여 대담하게 꾸려주기로 결심하였던것이다.

운동장부터 넓혀주기로 토론한 일군들은 현지에 나가 작업반별로 구간을 맡겨주고 경쟁을 조직하였다.

작업량이 방대하였지만 모두가 떨쳐나 한주일동안 전투를 벌려 운동장을 크게 넓히고 울타리도 새로 정성껏 쌓아주었다.

그후 농장일군들은 학생들에게 빵과 우유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을 전개하였다. 생산설비를 자체로 차려놓고 첫 제품을 생산하였을 때 적지 않은 일군들은 그만하면 맛이 괜찮다고 하였지만 리당일군은 불합격을 놓았다.

농촌에서 아이들에게 빵을 정상적으로 공급해주는것도 큰것이라고 생각하는 일부 일군들의 관점과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그는 준절하게 말했다.

왜 아이들에게 더 맛있는 빵을 먹일 생각을 하지 못하는가. 우리 일군들이 사랑과 정을 기울일수록 아이들이 자기 고향에 대한 강렬한 애착을 가지고 더 좋은 래일을 안아올 큰꿈을 꾸게 될것이 아닌가.

이렇게 되여 빵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해당 성원들이 이름난 식료공장들로 떠나갔다.

농장일군들은 농사일로 바쁜 속에서도 원료보장을 정상화하는데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였다. 맛좋은 빵과 우유를 받아안으며 웃음짓는 아이들의 모습에서 그들은 락을 찾군 하였다.

두해전 경애하는 원수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새 세기 교육혁명을 일으켜 우리 나라를 교육의 나라, 인재강국으로 빛내이자》를 받아안고 학교꾸리기계획을 면밀하게 세운 농장일군들은 초급일군들을 불러일으켜 학교지붕에 색철판기와를 씌워주기 위한 공사를 벌리는 한편 여러가지 목공설비들을 갖추어놓고 자체로 멋진 창문과 교실출입문들을 만들고 수백조의 책걸상을 수리하여 새것처럼 도색해주었다.

지난해 어느날 리당일군은 초급일군들과 함께 시작된 본보기로 훌륭히 꾸려진 대동강구역 룡라고급중학교를 돌아보았다.

그리고나서 그는 초급일군들에게 강조하였다.

농촌학교라고 뒤져야 한다는 법은 없다. 목표를 이 학교보다 더 멋있게 꾸리는것으로 내세우고 본때있게 내밀자.

불길이 일어번졌다. 학교꾸리는 사업이 언제나 중요한 문제로 농장의 회의들마다에서 토의되였다.

색철판기와를 씌우는 작업이 마무리된데 이어 이들은 진분홍색과 연분홍색타일을 조화롭게 결합하여 1800여㎡의 교사외벽타일붙이기작업을 짧은 기간에 끝냈다.

이곳 일군들과 농장원들은 학교가 근직인 본보기가 될수 있게 머칠전에 국가망가입을 위한 공사를 끝내도록 도와준데 이어 다기능화된 교실꾸리기에 필요한 수많은 현대적인 교육수단들을 일식으로 마련해주었다. 울타리주변에 150그루의 느티나무가 설레이게 하고 야외학습터와 수영장을 멋쟁이로 꾸려주기 위한 개건전투도 힘있게 벌리고있다.

퍼내고퍼내도 마를줄 모르는 샘물처럼 학교일군들과 교원들이 끝없이 펼치는 감동깊은 이야기들을 여기에 다 적지 못한다.

모든 일군들이 이들처럼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교육사업의 참된 주인이 되여 발이 닳도록 뛰여다닌다면 교육강국, 인재강국의 밝은 래일은 더욱 앞당겨질것이다.

본사기자 김 명 훈

세상망신인줄도 모르고 꿰진 모략북통을 두드려대는 대결광신자들의 광대놀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검열단 대변인담화

해마다 3월 26일을 전후하여 남조선에서는 례괴한 대결광대극들이 펼쳐져 내외의 쓰디쓴 조소를 불러일으키군 한다.

《천안》호침몰사건을 《치욕의 날》, 《응징의 날》로 정한 역적패당은 올해에도 바다와 땅, 하늘에서 이른바 《대결축제》놀음을 벌려놓았다.

바다에서는 괴뢰함선들이 《령해사수의 지배양》을 떠들며 죽은 《용사》들에 대한 《해상위령제》놀음과 《보복의지》를 다지는 해상기동훈련을 벌리는가 하면 지상에서는 《〈천안〉함 46용사 위령합참때》와 《〈천안〉함전시장》에 대한 참관, 동족대결을 선동하는 현수막설치놀음을 벌리고있으며 하늘에서는 사람가죽을 쓴 온갖 인간오작품들이 반공화국삐라살포를 위해 날리는 기구와 무인기들이 어지럽게 떠돌고있다.

서울 한복판에서는 청와대와 괴뢰일부, 국방부 등이 겨끔내기로 나서서 《단호한 응징》과 《뼈저린 보복》을 부르짖는 대결악당들을 목이 터지게 고아대고있다.

온 남녘땅을 광란적인 반공화국대결도가니로 달아오르게 만들고있는 이 광대극의 주역은 천하악녀 박근혜이다.

지난 3월 21일 공식석상에 나타난 박근혜는 《천안》호침몰사건을 계기로 만들어낸 대결고취의 간판인 《서해수호의 날》을 거론해대면서 그 누구의 《도발만행》에 대하여 악의에 차 뇌까려댔다.

천하에 둘도 없는 대결악녀의 체질적인 대결악담질이라 별로 새삼스럽지도 놀랍지도 않다.

원래 동족대결을 고취하고 북남관계를 악화시키며 이 땅에 핵전쟁의 참화를 불아오는데 도움이 된다면 사람들이 침을 뱉든 말든 상관없이 허위와 모략의 꿰진 북통을 마구 두드려대는 차마 눈뜨고 보지 못할 어리광대놀음도 서슴지 않는것이 바로 박근혜괴당인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천안》호침몰사건을 《북의 소행》이라고 우겨대며 불신과 적대, 대결과 충돌을 고취해대는것은 그 누구에게도 통할수 없는 궤변이고 억지이며 용납 못할 도발로 된다.

박근혜가 떠드는 《북소행설》은 터무니없는 날조와 모략극인것으로 하여 오늘이 시각까지도 무수한 의혹과 거센 반발을 초래하는 화근으로 되고있다.

그중에는 지난해 해당 분야에서 명망있는 한 재미동포가 1,300여페지에 달하는 적지 않은 《천안》호관련자료들을 과학적으로 공명정대하게 분석한 결과 괴뢰들이 주장하는 《북어뢰 〈1번〉이 〈천안〉함공격에 리용되였다고 가정해도 그 성공확률은 0.0000001%》라고 사실상 전면부정한 사실도 있다.

괴뢰들이 《산에서 고래를 만난 격》으로 득의양양하여 고아대던 《북잠수정침투경로》라는것도 결국은 바다우의 파도를 가리켜 배 지나간 자리라고 우겨대는 꼴로 세상비난거리가 되였다.

오죽하면 함선과 무하장병들을 물귀신으로 만들고도 처벌은커녕 표창을 받아 못사람들을 경악케 하였던 《천안》호 함장 이란자가 《과학적조사결과를 못 믿겠다》는것은 정부와 군을 맹목적으로 불신하는 일부 인사들이 진실을 외곡하여 선동했기때문》이라고 떠들던 종전의 태도에서 벗어나 최근 언론에 지금까지의 자기발언은 《우의 각본에 따른것이였다.》고 실토하여 괴뢰당국을 더 큰 곤경에 몰아넣었겠는가.

날이 갈수록 확산되는 이 모든것에 당황망조한 괴뢰들은 나중에는 저들의 《조사결과》를 전면반박하는 내용으로 편집된 기록영화 《〈천안〉함프로젝트》까지 문제시하며 영화제작자에게 족쇄를 채웠는가 하면 남조선공영방송프로의 하나인 《추적 60분》(《천안》함편)을 제관에 회부하는 놀음도 끼리낌없이 자행하였다.

남조선년 모략극의 진상을 파헤치는 대상이라면 그가 사람이건 기록영화이건 개의치 않고 무작정 족쇄를 채우는자들은 이 세상에 박근혜괴당밖에 없을것이다.

박근혜와 그 괴당이 만천하에 그 정체가 폭로되고도 남은 《천안》호침몰사건이 《북의 소행》이라는 다 꿰진 북통을 계속 두드려대는 근저에는 북과 남사이를 영원히 화해할수 없는 적대와 대결관계로 만들어놓자는 흉심이 깔려있다.

이미 3월 26일을 《〈천안〉함피격사건 상기기간》으로 설정해놓은 박근혜와 그 괴당은 조선서해열점수역에서 《〈천안〉함 46용사 위령합참때》와 《해상위령제》, 《해양수호결의대회》 등 각종 《행사》들을 년례적으로 벌려놓고있다.

무엇을 《참배》하고 《위령》하며 《수호》한단 말인가.

여기에는 군사적도발에 광분하다가 수종고혼이 된자들을 동족대결의 제단에 올려놓고 무수한 청장년들이 그뒤를 따르게 하려는 역적패당의 간악한 기도가 무섭게 꿈틀거리고있다.

《천안》호침몰사건을 동족대결의 수단으로 악용해온 괴뢰들의 지주받을 죄행에 대하여서는 더 언급할 필요조차 없다.

동족대결에 제물로 바쳐진자들을 《위로》한다는 듣기에도 지겨운 《참배》놀음에 남녀로소를 다 끌어내는 목적은 다른데 있지 않다.

사실 제대로 되자면 제명을 못산 불운의 주검들을 산생시킨 음산한 이곳을 동족을 적대하고 대결을 고취한 말로가 얼마나 비참한것인가를 보여주는 장소로 만들어야 할것이였다.

그러나 박근혜와 그 괴당은 더 많은 사람들을 동족대결에로 내몰려고 획책하고있는것이다.

《〈천안〉함전시장》이라는 곳에 대한 《참관》놀음도 그러하다.

《〈천안〉함전시장》은 두해전 12월 박근혜의 직접적인 지령에 따라 괴뢰해군 2함대사령부가 도사리고있는 평택항에 만들어진 대결고취장이다.

괴뢰들은 원인모를 리유로 두동강 난 선체를 끌어다놓고 물고기밥이 되여버린 《천안》호 사병들의 《호국정신》이 되살아나 그 무슨 《전투의지》를 가동시키고 《안보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는 《호국의 현장》이 되였다고 떠들어대고있다.

아마도 당한 생죽음이 동족에 대한 《필승》으로 오도되고 군사적대결에 나섰다가 침몰된 장소는 《호국의 현장》으로 안겨오는것 같다.

괴뢰당국이 주판하여 벌려놓은 대전 《현충원》에서의 《〈천안〉함 6주기 추모행사》요, 서울 《전쟁기념관》에서의 《공동안보세미나르》요, 《추모손도장찍기 및 추모헌화》요 하는 등의 광대극들은 박근혜와 같이 대결의식이 골수에 찬 광신자들만이 연출해낼수 있는 망동일뿐이다.

지난 시기 《농협》금융뽐뿌러망미비사건, 《3.20해킹사건》, 《GPS전파교란사건》, 《무인기사건》 등 남녘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무작정 《북의 소행》이라고 떠들어댄 역적패당의 체질적인 악습은 절대로 달라지지 않을것이다.

바로 이러한 광대극들을 《년례화》, 《정례화》하면서 때없이 《대결의 북통》을 더욱 요란스럽게 두드려대는 박근혜괴당의 행위는 조성된 정세에 비추어볼 때 더욱 용서할수 없다.

지금 괴뢰들이 미국상전과 야합하여 남조선의 동, 서, 남해에서 우리의 《핵심부타격》을 노린 대규모련합해상기동훈련을 벌려놓고있는 시점에서 《천안》호침몰사건을 계기로 이런 무모한 도발을 감행하겠는지는 그 누구도 예측할수 없다.

더우기 군사분계선일대에 인간쓰레기들을 내몰아 반공화국삐라살포를 강행하는 경우 우리 군대의 무자비한 반격을 초래하게 된다는것은 너무나도 명백하다.

국단적인 도발은 기필코 정의의 대응을 올발시키는 법이다.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야만적인 《제재》와 전대미문의 군사적도발에 따른 국악무도한 《제도전복》까지 노리고있는 미국과 괴뢰들의 책동은 섬멸적인 보복전을 초래하게 될것이다.

박근혜괴당은 똑바로 알아야 한다.

불의가 정의를, 허위가 진리를 이긴 례는 이 세상에 없다.

만약 철면피하게도 《천안》호침몰사건의 《북소행설》을 떠들어대며 계속 동족대결에 광분한다면 온 남녘땅이 검푸른 바다속에 수장된 《천안》호신세를 면치 못할것이다.

주체105(2016)년 3월 26일
평 양

추악한 오명에 비낀 청와대마녀의 만고죄악

민족화해협의회 고발장

지금 남조선에서는 박근혜년이 집권 3년간 저지른 온갖 반민족적이고 반인민적이며 반인륜적인 악행을 년의 이름에 빗대여 조소, 폭로하는 것이 하나의 류행으로 되고있다.

이로 하여 치마두른 늙은 요귀 박근혜에게는 셀수없이 많은 죄악의 오명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다.

흔히 사람들에게는 부모가 지어준 이름외에 애칭과 별칭이 있지만 이 세상에 박근혜에게 붙어있는 오명처럼 그토록 루추하고 지겨운것은 없다.

희세의 악녀에게 달려있는 그 오명마다에는 나라와 민족앞에 저지른 박근혜의 만고죄악이 응축되여있고 매국역적에게 피붓는 민족의 저주와 규탄, 분노가 서려있다.

민족화해협의회는 남조선의 민심이 청와대마녀에게 달아준 수많은 추악한 오명들가운데 극히 일부만을 추려 그에 비낀 천추에 용납 못할 반민족적이며 반인민적인 죄악을 만천하에 고발한다.

1. 리명박근혜

조선사람의 성은 일반적으로 한글자이다.

《독고》나 《선우》와 같이 성이 두글자인 경우도 간혹 있다.

그런데 남조선사람들은 박근혜에게 조선사람 그 누구에게도 없는 《리명박》이라는 세글자짜리 성을 선사했다.

쥐박이의 이름전체가 박근혜에게 가붙은것이다.

생김새부터가 똑같은 쥐상이고 북남관계를 모조리 칼랑쉰 리명박과 하는 짓거리가 너무도 신통하게 닮은것으로 하여 박근혜에게 붙어진 오명이다.

이에 대해 사람들은 이름이 길어 말음하기가 좀 시끄럽기는 하지만 뜻은 전혀 무리가 없다고 한결같이 말하고있다.

그것은 《리명박과 박근혜는 대북정책에 있어서 쌍둥이》라는 세인의 평가가 고스란히 집약되여있기때문이다.

남조선인민들은 박근혜의 《대북정책》인 《한반도신뢰프로세스》, 《실망프로세스》, 《불신프로세스》, 《증오프로세스》, 《로망프로세스》를 넘어 이미 종말을 고한 리명박의 《비핵, 개방, 3 000》과 같이 《시원하게 망하는 시망프로세스》로 되였다고 손가락질을 하고있다.

쥐명박이처럼 외모도 볼품없고 관상도 쥐박이며 정치는 도박이고 철학은 척박이며 생각은 천박, 경제는 독박, 인심은 야박, 후기는 악박, 취미는 구박, 서민은 핍박, 전망은 희박이라고 하면서 《모든것이 똑같다.》고 신랄히 야유하고있다.

박근혜는 쥐박이로부터 물려받은 《루그령박》에 《통일대박》이라는 비단보자기를 씌워보았으나 그것은 《통일박》이 아니라 《전쟁박》, 《대결박》, 《미친박》이라는 민심의 엄정한 판결을 받고 오늘은 《러진박》, 《애진박》, 《부서진박》이 되고말았다.

2. 발끈해

《왜 없었는가? 도대체 누가 결정했느냐?》

박근혜가 발끈했다.

순간 국방부 장관 한민구와 통일부 장관 류길재가 깜짝 놀라 쥐구멍을 찾았다.

그리고는 발끈해의 치마자락을 잡고 말한다.

《우리도 보도를 보고야 알았습니다. 애기봉등탑을 철거하는 대신 전광판을 설치하겠습니다.》

시뻘겋게 달아오르다 못해 퍼렇게 색이 죽어가던 발끈해의 얼굴에 그제서야 조금 화기가 돈다.

이것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다.

지난 2014년 10월 괴뢰국방부가 비방중상행위를 당장 중지할데 대한 우리의 정당한 요구와 남녘의 민심에 놀리워 《대북심리전》에 악랄하게 리용해오던 경기도 김포시의 애기봉등탑을 43년만에 철거한것을 두고 독기를 뿜던 박근혜의 생생한 몰골이다.

집권 3년기간 노상 발끈발끈하며 《잘못된 남북관계》니, 《원칙고수》니 하고 북남관계를 차디찬 얼음장으로 만들어버린 장본인이 다름아닌 박근혜, 발끈해이다.

북남대화에서는 《적》과 《급》이 맞아야 한다고 발끈하며 우리의 성의있는 노력에 의해 모처럼 마련되였던 북남당국회담도 끝내 파탄시키고 《서뿌른 판단으로 남북관계의 환경을 바꾸는것은 매우 위험하다.》, 《도발에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발끈하여 북남관계를 모조리 차단해버린 발끈해이다.

올해에만도 우리의 수소탄시험성공에 혼이 빠져 발끈하며 《대북확성기방송》을 재개하라고 교아대고 보조리 바꾸어치우는 바꾸네(박근혜)같은 천하의 변덕꾸러기는 없을것이다.

우리의 인공지구위성발사성공소식에 온 세계가 끓고있던 지난 2월 괴뢰통일부것들이 개성공업지구와 관련하여 북남관계의 가느다란 실마리라도 남겨보려고 《일시중단》, 《잠정중단》이라는 표현을 넣은 《성명》초안이라는것을 박근혜에게 제출하였다고 한다.

바꾸네는 순간에 낯색이 새파랗게 변하더니 《북이 유엔제재도 두려워하지 않는것 같다.》, 《파거와 다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악을 쓰며 고약한 말마디들을 제가 직접 골라 박아넣고 《일시중단》을 《전면중단》이라고 써갈겨대여 《원안》을 흔적조차 찾아볼수 없게 바꾸어놓았다.

이뿐이 아니다. 남조선인민들이 《빠라 한장에 전쟁난다.》고 하면서 안타까와 발을 동동 구를 때에는 반공화국삐라살포는 《표현의 자유》이고 《막을 법적근거가 없다.》고 을러메다가도 제년을 비난저주하는 삐라가 남조선땅에 뿌려지자 태도를 180°로 바꾸어 《철저히 조사하라.》, 《반드시 법적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괴대를 세우던 철면피한 년이 바로 바꾸네이다.

제 말에 고분고분하지 않으면 그가 누구이든 속치마를 갈아입듯 바꾸어치우는것도 바꾸네이다.

집권 3년기간에 걸핏하면 괴뢰총리를 손바닥뒤집듯 바꾸고 숱한 장관, 차관들을 바꾸어치운 바꾸네를 가리켜 사람들은 《용서하는것은 자신뿐》이라고 조소하고있다.

바꾸네가 바꾸는것은 정책이나 수하졸개들만이 아니다.

지난 3년동안 내외나들이에 형형색색인 180여벌의 옷을 번질나게 바꾸어입고 돌아친것을 보면 바꾸네의 변태적인 생활방식과 취미를 잘 알수 있다.

한번 입고 제버린 옷가지만 해도 무려 600여벌이나 된다고 하니 옷과 신발빨이 많아 세계기록을 세운 필리핀의 이멜다 마르코스도 무색케 할 정도이다.

《세월》호참사로 온 남녘땅이 상가집분위기가 되였을 때 몰래 옷을 바꾸어입고 7시간동안 외도질을 하고 또 사치한 옷을 바꾸어입고 미국상전에게 아양을 떠는가 하면 얼룩무늬 줄색옷을 바꾸어입고 여기저기 돌아치며 히스테리적인 동족대결광기를 부리는 꼴을 보며 사람들은 박근혜야말로 하루빨리 바꾸어야 할 미친 요귀라고 지탄하였다.

4. 뻐근해

박근혜밑에선 온 남조선사람들이 다 뻐근해한다.

경제파국으로 뻐근해하고 각종 대형참사로 뻐근해하고 늘어나는 흉악범죄에 시달려 뻐근해하고 핵전쟁광란의 총포소리에 지쳐 뻐근해한다.

오죽했으면 박근혜의 동족대결광기에 놀려 괴뢰군복무에 시달리던 사병들이 뻐근함을 견디지 못해 자살과 탈영의 길을 택하겠는가.

박근혜의 어원 팔다리를 주무르는 졸개들도 결코 례외가 아니다.

집권여당의 대표라는자가 독단과 전횡을 부리며 제 주장만 옳다고 내려먹이는 청와대안방주인에게 대들었다가 《배신자》로 락인되여 눈밖에 나게 되자 할수없이 억지 《사죄》를 하며 뻐근해하고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봉건시대 《녀왕》처럼 행세하는 그 손에 숟가락, 저가락까지 받쳐주어야 하는 가련한 노복의 신세를 한탄하며 뻐근해한다.

북남회담학에 나와앉아 회설수설도 채 끝내지 못했는데 박근혜년이 《해가 진 뒤에는 욱에 머물지 않도록 하라.》고 《어명》을 내리는 바람에 밥 한술이라도 얻어먹고 가려던 소박한 소원마저 이루지 못하고 한숨을 쉬며 뻐근해한 졸개들도 있다.

그래도 명색이 통일부 장관이라는자가 뻐근해에게 얼마나 하대를 받았으면 《통일부 장관은 허수아비, 아무나 와도 되는 자리》라고 개탄하였겠는가.

뻐근해에게 짓눌리워 오늘은 이 소리, 래일은 저 소리 하다가 《말바꾸기명수》, 《명 탕》, 《저능아》, 《청와대의 꼭두각시》로 불리우고 제대로 자지 못해 입술까지 부르터 내외의 《동정》을 받지 않으면 안되는것이 괴뢰통일부 장관의 가련한 몰골이다.

남조선언론들은 《홍용표의 부르튼 입술은 표일대로 꼬인 남북관계를 보는것 같다.》, 《국민이 주목하는것은 홍용표의 입술상처가 아니라 그의 입을 통해 드러난 정부의 혼란상》이라고 하면서 박근혜가 있는한 북남관계는 절대로 풀릴수 없다고 한결같이 말하고있다.

5. 닭그네

남조선사람들은 박근혜를 닭그네로 락인하여 《닭아 닭아 그네 닭아, 청와대서 노는 닭아, 꼬꼬대 꼬꼬 닭소리에, 서민들만 죽어가네…》라는 닭타령을 지어부르고있다.

정말 그른데 없다.

통일문제와 북남관계문제에 대한 아무런 일가견도 없고 정세흐름에 대한 초보적인 판단력도 없이 동족대결만 쉴새없이 외워대는것이 바로 닭그네이다.

행여나 무슨 들을 소리가 있겠나 하여 닭그네의 《국정연설》이요, 《기념사》요, 《기자회견》이요 하는데 잠시나마 귀를 기울였던 사람들은 한결같이 《메일 똑같은 말만 반복하고 수첩에 적힌대로 판에 박은듯 한 목음기소리만 들려준다.》, 《재미없는 낡은 흑색영화》, 《고집불통의 단독웅변대회를 보는것 같다.》고 얼굴을 찌프리고있다.

제 머리로 사고하여 말할줄 모르고 머리에 든게 하나도 없다보니 북남관계문제와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꿀먹은 벙어리처럼 침묵으로 일관하거나 떠듬거리며 알지 못할 말을 내뱉아 보는 사람들마다 오줌통이 터진다고 아우성친다.

《수준이 저 정도인가?》, 《기자회견을 보니 혈압이 올라 TV를 꺼버리고싶다.》, 《누가 시켜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기 싫으면 그만둬라.》, 《박근혜의 진짜모습이 드러났다.》, 《박근혜의 짝 막힌 모습에 할 말이 없다.》, 《닭그네가 엉뚱한짓을 하지 않겠는지 걱정스럽다.》…

사람들은 《국가안보실》이요, 《통일준비위원회》요 하는 쓰지 못할 반통일대결기구들만 잔뜩 만들어놓고 무지하게 《응징》이니, 《압박》이니 하는 코꼬댁소리만 귀청이 떨어지게 질러대는 닭그네의 모가지를 하루빨리 비틀어야 한다고 주장하고있다.

6. 께끈해

박근혜는 모든것을 다 팔아먹는 께끈해이다.

몸도 팔고 나라도 팔고 이제는 피를 나눈 동족까지 팔아먹을 작정을 한다.

그래서 창녀, 정치매춘부 등 지저분한 《칭호》도 많다.

권력의 자리에 오르기도 전에 벌써 온 남조선땅에 《몰래 낳아 버린 30살짜리 아들이 있다.》, 《나이가 철찐 우인 목사와 동거생활을 한지 수십년이 된다.》는 파다한 소문을 낸 께끈해이다.

아니라고 발버둥치며 아무리 《순결무구》를 떠들어도 곧이듣는 사람 없고 곧이 믿는 사람 없다.

《혈맹》이요, 《우정》이요, 《친구》요 하고 침략자인 외세를 껴안고 입맞추며 돌아가는 꼴은 더 께끈하기 그지없다.

홀로 사는 늙다리바람쟁이의 복받치는 욕구를 누를길 없어 화려하게 행장을 꾸려 대양건너까지 날아갔건만 호색한인 상전은 매음부의 에간장을 더 말리느라 거들떠보지도 않은채 골프놀이에만 여념이 없었다.

매춘이란 돈을 받고 몸을 파는노릇이지만 동전 한잎 받지 못하는 그 손으로 오히려 상전에게 수천억원의 《방위비》까지 섬겨바치며 동족을 멸살시켜달라고 절레짝같은 몸뚱이를 가차없이 무차별적으로 내던지고있는 께끈해이다.

노린내나는 상전의 렬가슴을 긁어주며 《전시작전통제권을 재연기하게 해달라.》고 온몸을 비비적거리고 정의의 칼세례를 받고 병원침대에 뻐드러진 또 다른 코큰 《서방》놈에게는 만사를 제치고 달려가 《나도 칼맞은적이 있다.》고 낯뜨겁게 불을 부벼댔다.

우리 민족의 백년숙적인 일제의 성노예범죄를 10억¥이라는 몇푼의 돈을 받고 어물쩍 덮어버려 바다건너 왜놈의 수장이 《더이상 사죄란 없다.》고 입이 째지도록 너털웃음을 짓게 만든것도 바로 께끈해이다.

사람들은 50여년전에 친일매국역적 박정희가 《한일협상》이라는 굴욕적인 밀약을 통해 3억US$의 돈을 받고 민족의 리익을 팔아먹었다면 오늘은 그 딸년이 10억¥의 돈을 받고 《우리의 혼을 팔아넘겼다.》고 저주하고있다.

민족의 존엄을 팔아 자기의 수욕을 채우는 박근혜, 께끈해를 당장 불태워죽이자고 분노의 함성을 터치고있다.

7. 독사근혜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박근혜를 가리켜 서슬푸른 독기가 온몸을 감싸 열파 정이 식어버린 말그대로 《행혈동물》, 《독사》라고 불러왔다.

박근혜는 애비, 에미가 총에 맞아 죽었을 때 눈물 한꼬치 흘리지 않아 만사람들을 경악케 하였으며 벌써 그때부터 남조선항간에서 암독사로 불리웠다고 한다.

청와대의 비화가 조금이라도 새여나갈 때에는 《누가 촉새처럼 나불거렸는가.》고 독을 쓰며 끝까지 찾아내 울가미를 씌워 내동댕이치고 세상만사가 제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졸개들의 목을 눈섭 하나 까딱하지 않고 사정없이 베여버리는 무서운 독사년이 바로 박근혜이다.

표독스러운 암독사의 혀가 한번 날름거리고 치째진 눈에 독기가 서리면 수하졸개들이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 제대로 몸을 가눌수 없다고 한다.

합법적정당을 《종북》의 감투를 씌워 강제해산시키고 독재권력유지에 방해가 된다는 리유로 백주에 언론사를 폐간시킨 장본인이 바로 암독사 박근혜이다.

사람들은 박근혜가 성격도, 기질도, 통치방식도 《〈유신〉독재자인 박정희를 신통히도 닮았다.》고 하면서 총에 맞아 비명횡사한 애비의 가련한 전철을 밟아 《심복들의 총에 맞아 죽을수 있다.》, 《온 집안이 총에 맞아 죽은 희귀한 집안으로 력사에 남을수 있다.》고 예언하고있다.

8. 개근혜

박근혜는 사람보다 개를 더 좋아하는 개근혜이다.

그래서 철부지때에는 신문에 《보신탕집에 묶여있던 개가 달아났다.》는 기사가 실리면 너무 좋아 어쩔줄 몰라하는 《개미치광이》로 소문을 냈고 지금은 청와대에서 개를 유일한 《친구》로 여긴다고 하니 어찌 보면 개같은 인생이 처량하기도 하다.

남조선사람들은 개근혜가 집권 3년간 남조선의 정치도 개판, 경제도 개판, 민생도 개판으로 만들어놓았다고 하면서 《개들도 보금자리가 있는데 한지에 나앉은 사람들걱정은 왜 안하는가.》, 《사람을 개로 취급하는 이 땅을 떠나고야말겠다.》고 욕하면서 《개쓰레기년》, 《밤길을 주의하라.》고 벼르고있다.

미국의 죄사슬에 목이 매여 상전이 던져주는 빵부스레기를 받아먹으며 동족의 존엄과 체제를 물어뜯기 위해 아가리를 벌리고 쉴새없이 짖어대고있는 개근혜는 철저히 길들어진 미국산 암개임이 틀림없다.

지어 섬나라 수개들한테서까지 《독재자의 딸》, 《악담을 퍼뜨리는 아낙네》, 《바보》, 《철부지어린이》, 《어리석은 집권자》, 《수난당한 민비》 등으로 놀림받고있는것이 다름아닌 청와대 암개이다.

그렇듯 가련하고 외로운 암개가 오늘은 완전히 미친개가 되였다.

미친개를 몽둥이로 때려잡아야 한다는것은 구태여 더 론할 필요가 없다.

9. 악근혜

여위고 구부정한 늙다리미친개에게 이제는 마지막악만 남았다.

《도끼로 100번까지 찍었는데 안 넘어간 나무가 101번째에는 쓰러지게 될것》이라고 회심의 미소를 짓던 그 상통에 고뇌와 번민, 피로의 진때가 쌓이고쌓여 찌그러진 화석이 된것이다.

수단과 방법을 다하여 《흡수통일》야망을 이루어보려던 허황한 꿈이 완전히 깨여진 오늘의 현실을 랭정하게 인정하느냐 아니면 이미 줄달음쳐온 멸망의 구렁텅이로 질주하느냐.

운명의 갈림길에 선 박근혜는 너무나도 비참한 제년의 몰골을 보고 수치와 혐오감으로 머리칼을 쥐여뜯으며 이발을 사려물고 최후의 악을 쓰는 악근혜가 되고 말았다.

악근혜는 《북에 대한 제재결의가 끝장결의, 마지막결의가 되게 해달라.》고 외세의 옷섶을 부여잡고 빌고 또 빌면서 동족을 향해 구정물을 토해내다 못해 뼈만 남은 앙상한 두 주먹을 후들후들 떨며 《생존의 불가능》, 《뼈아픈 대가》를 피터지게 줴쳐대고있다.

악으로 빚어지고 악으로 생존해온 악근혜가 지옥으로 안내한다는 누명개의 뒤를 따라 마지막악을 쓰며 황천길로 줄달음치고있다.

주체105(2016)년 3월 26일
평 양

새 학년도준비 성과적으로 결속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교육은 후대들을 지덕체를 겸비한 혁명의 계승자로 키우는 중대한 사업이며 그것은 민족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근본문제의 하나입니다.》

당 제7차대회가 열리는 뜻깊은 올해에 맞게 되는 새 학년도를 앞두고 전국의 모든 대학, 학교들에서 교수준비전시회 등 교수준비를 빈틈없이 갖추기 위한 사업, 교육조건과 환경을 일신하기 위한 사업이 힘있게 벌어졌다.

이와 함께 해당 위원회, 성으로부터 련판단위들, 각급 당, 정권기관들, 각지 공장, 기업소들에서 새 학년도를 보장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교과서와 소학교 신입생들에게 안겨줄 교복생산을 빛내는 자랑찬 성과가 이룩되였다.

모든 사업의 첫자리에 놓고

학생들에게 교복을 만들어입히는 사업은 아무리 어려워도 죽으나사나 무조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전국적으로 교복생산을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졌다.

일군들이 이 사업을 모든것의 첫자리에 놓고 앞장에서 발이 닳도록 뛰고 또 뛰면서 전투지휘를 기동적으로 진행하였다.

김정숙평양방직공장에서는 교복천과 가방용천생산을 70일전투의 중요목표로 정하고 대중의 정신력을 총폭발시키는 화선식경제선동을 들이대면서 생산에 박차를 가하였다.

그리하여 날마다 생산적앙양이 일어나는 속에서 교복천생산을 위한 70일전투목표들이 앞당겨 수행됨으로써 평양시안의 피복공장들에서 새 학년도전으로 교복생산을 다그쳐 끝낼수 있는 돌파구를 열어놓았다.

사리원방직공장, 9월방직공장, 구성방직공장을 비롯한 여러 방직공장들에서도 교복천생산이 힘있게 벌어지고 각지 피복공장들과 옷공장들에서 70일전투기간 혁신의 불비람을 더 세차게 일으킴으로써 전투가 시작된지 20일만에 전국적으로 소학교신입생들을 위한 교복생산을 결속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또한 각지 가방 및 일용품생산기지들과 지방공업공장들에서는 예비와 잠재력을 적극 동원하고 자력자강의 힘으로 소학교신입생들에게 안겨줄 가방과 학습에 절실히 필요한 8종의 학용품생산을 적극 다그쳐 지금 결속단계에 들어섬으로써 새 학년도를 성과적으로 보장할수 있게 되였다.

방대한 교과서생산목표 앞당겨 수행

교육도서인쇄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강령에 따르는 3단계 교과서와 교수참고서생산을 앞당겨 끝내는 커다란 혁신을 창조하였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림경주, 문광수동무들을 비롯한 공장의 일군들은 충정의 70일전투가 시작되자 협의회를 열고 교과서생산을 앞당겨 끝낼 높은 목표를 세우고 그 수행방도를 구체적으로 토의하였다. 새 학년도를 맞는 머나먼 북방의 산골아이들에게까지 교과서들이 제때에 가닿게 하자면 하루라도 날자를 앞당겨야 했다.

현존생산능력을 가지고 날자를 앞당긴다는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였지만 절시의 각오로 충만된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매일 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면서 공장현대화사업도 동시에 내밀었다.

당, 행정일군들은 생산현장에서 로동자들과 함께 철야전투를 벌리면서 교과서생산을 기어이 앞당겨 끝내고 경애하는 원수님께 충정의 보고를 올리자고 열렬히 호소하였다.

교대로 전투가 벌어지는 속에 교과서생산의 질과 속도를 다같이 보장하기 위한 사회주의경쟁열풍이 세차게 일어번졌다. 공훈인쇄공인 작업반장 림창익동무는 불치의 병진단을 받고서도 교과서생산을 위해 현장을 뜨지 않고 전투를 벌렸고 년로보장을 받은 오랜 기능공들도 스스로 현장에 나와 일손을 적극 도와나섰다.

교육위원회의 일군들과 정무원들은 하루일을 마치고 교과서생산전투장에 달려나와 후방사업도 하고 밤늦도록 로동자들과 함께 전투를 벌렸다.

김책공업종합대학에서도 인쇄설비의 만가동을 보장하기 위해 뜨거운 진정을 바쳤고 동대원구역의 녀맹원들도 제책공정을 맡아 애국의 마음을 바쳤다.

이런 붉같은 마음들에 받들려 50여종에 수백만부의 교과서와 교수참고서생산이 결속되였으며 학생들의 새 학년도개교준비를 성과적으로 보장할수 있게 되였다.

80여차의 수송전투

철도성에서 올해에 들어와 80여차의 교과서수송전투를 벌림으로써 새 학년도를 맞게 되는 전국의 학교들에 공급될 교과서전량을 수송하는 혁신적성과를 이룩하였다.

특히 충정의 70일전투가 시작되여 20일동안에 30여차의 수송을 조직하여 3월 중순까지 교과서수송을 전부 끝내였다.

성의 일군들은 후대교육사업을 조국의 미래를 위한 우선적인 사업으로 여기고 70일전투기간 그 어느때보다 수송이 긴장한 속에서도 교과서수송을 위한 작전을 치밀하게 짜고들었다.

책임사령원 리춘경, 사령원 김상현동무들은 수시로 역에 나가 수하물차에비를 얻어내고 교육위원회일군들과의 긴밀한 련계밑에 교과서가 생산되는족족 전국각지에 실어보내기 위한 수송전투를 힘있게 벌려나갔다.

지난 3월 중순 성의 책임일군들이 앞장에서 서서 교과서수송을 위한 림시렬차를 편성하고 량강도와 함경북도를 비롯하여 어떠 지역에 교과서를 보내주기 위한 마지막수송전투를 벌림으로써 새 학년도개교준비를 성과적으로 보장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였다.

본사기자

교원들의 자질을 높이고 교수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에 큰 힘을 넣고있다.
—원산시 봉수초급중학교에서— 본사기자 찍음

새로운 만리마속도창조에로 불러일으키는

선전화들

승리와 영광의 5월을 향해 충정의 70일전투의 철야진군길을 힘차게 다그쳐나가고있는 천만군민의 심장에 혁명열, 투쟁열을 더해주는 선전화들이 나왔다.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불굴의 정신력과 자강력을 남김없이 발휘하며 혁명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가는 우리 인민의 필승의 기상을 보여주는 격동적인 화폭을 담은 선전화들에는 《동무는 만리마를 탔는가?》, 《자강력제일주의를 높이 발휘하라!》라는 글발이 새겨져있다. 우리 당이 대위준 만리마를 타고 승리의 명마루에로 솟구치며 시대의 엄숙한 물음을 제기하는 전설자의 모습이 형상된 선전화는 우주정복자들처럼 자력자강의 정신으로 투쟁해나갈 때 수입병과 의존심, 례배주의를 짓부시고 세기적인 기적과 위훈을 창조할수 있다는것을 직관적으로 강조하고있다.

필승의 신심드높이 자강력제일주의를 높이 추켜들고 최후승리를 향하여 폭풍노도와 같이 진격해갈 영웅적인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의 드팀없는 신념과 의지를 반영한 선전화는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오늘의 총돌격전에서 최상의 성과, 최고의 로력적위훈을 창조해나갈것을 호소하고있다.

선전화들은 당의 부름에 일심의 뢰성으로 화답하여 대고조전구들마다에서 과감한 공격전을 벌려나가는 천만대오의 혁명적열의와 자력자강의 창조정신을 더욱 북돋아줄것이다.

체육경기들이 진행된다

27일(일요일) 오전 빙상관에서는 조선체육대학과 장자산체육단사이의 남자빙상호케이경기가 있게 된다.

만경대상체육경기대회 축구 1급 1차경기일정은 다음과 같다.

27일 남자 룡남산:압록강
려 명:기판차
묘향산:룡악산
녀자 4.25:갈매기
압록강:리명수
28일 남자 경공업성:리명수
제 비:월미도
평 양:선 봉
녀자 룡악산:월미도
경공업성:묘향산
29일 남자 소백수:4.25
룡남산:기판차
압록강:룡악산
녀자 소백수:내고향
제 비:갈매기
녀자 봉화산:갈매기
소백수:리명수
30일 남자 려 명:리명수
묘향산:월미도
경공업성:선 봉
녀자 평 양:리명수
4.25:월미도
31일 남자 제 비:4.25
평 양:소백수
룡남산:룡악산
녀자 룡악산:경공업성
압록강:묘향산
4월 1일 남자 기판차:리명수
압록강:월미도
녀자 봉화산:갈매기
소백수:리명수

남자경기가 5월1일경기장에서 계속되며 녀자경기는 3월 31일까지 서산축구경기장에서, 4월 1일부터 5월1일경기장에서 진행된다.

【조선중앙통신】

백두산총대는 대결광신자들에게 가장 참혹한 멸망을 안기고야말것이다

특대형도발자들은 단호한 징벌을 피할수 없다

조선반도는 군사적대치의 첨예성과 무력배치의 집중도에 있어서 그 어디와도 비교할수 없는 세계최대의 열점지역이다. 언제 어느 시각에 폭발할지 모르는 시한탄을 품고있는 곳이 다름아닌 조선반도이다.

그런데 미국과 박근혜역적패당은 이에는 전혀 아랑곳없이 력대 최대규모의 《키 리졸브》, 《독수리 16》합동군사연습을 벌려놓음으로써 조선반도정세를 전쟁의 문어구에로 더욱 바싹 몰아가고있다.

더우기 엄중한것은 내외호전광들의 이번 불장난소동이 감히 우리 수뇌부와 《제도전복》을 노린 군사적도발에 집중되고있는 사실이다.

북침전쟁열에 들뜬 미제와 괴뢰군부호전광들은 그 무슨 《북종심내륙전공작전》이니, 《평양점령작전》이니 하고 떠벌이면서 우리의 최고존엄을 목표로 삼은 천하무도한 대결망동에 열을 올리고있다. 도발자들은 지금 《참수작전》과 같은 특수작전이외의 다른 길은 없다는 폭언을 마구 내뱉으면서 저들의 흉악한 기도를 실현하기 위해 각종 훈련들을 미친듯이 벌려놓고있다.

다시면 머질듯 한 평평한 정세하에서 감행되고있는 미국과 괴뢰군부깡패들의 군사적도발망동은 북침전쟁을 작정한자들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엄두조차 낼수 없는것이다.

현 사태를 기어이 핵전쟁으로 확대하려는 내외호전광들의 히스테리적광증은 이미 위험계선을 넘어섰다.

지금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이 감행하고있는 북침합동군사연습은 극히 침략적인 《작전계획 5015》에 따른것으로서 우리의 최고존엄과 체제에 대한 최악의 도발이며 로골적인 선전포고이다.

《작전계획 5015》는 추구하는 목적과 그 실행수단, 수행방식에 있어서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극히 흉악무도한 북침전쟁각본이다.

자나깨나 북침전쟁도발의 기회만을 호시탐탐 노려온 미국과 남조선괴뢰들은 크고작은 합동군사연습들을 년례행사처럼 벌려놓고 그것을 통하여 《작전계획 5027》, 《작전계획 5029》를 비롯한 각종 전쟁각본들을 단계별, 류형별로 수정보충완성해왔다. 하지만 그것들은 군사적힘의 파신에 빠진자들의 한갖 망상에 불과한것이였다.

다른 나라들에 대한 침략전쟁에서 오만해질대로 오만해진 미국은 오산하였다. 저들의 군사적위력과 공세가 조선반도에서는 통할수 없었다. 전쟁미치광이들이 아무리 콤퓨터전반을 두들겨대도 모의전쟁에서는 언제나 저들이 전쟁의 첫 단계에서부터 막대한 인명피해, 물적손실을 당하고 종당에는 대참패를 면치 못한다는 비극적결과만이 나왔다.

남조선괴뢰들을 내몰아 북남사이의 군사적긴장이 극도로 첨예한 지역에서 무장충돌을 일으키고 그것을 전면전쟁에로 확대해보려는 미국의 기도도 수포로 돌아갔다. 미국의 비호밑에 기고만장해진 괴뢰군부불한당들이 이미 짜놓은 각본에 따라 거듭 무장도발에 나섰지만 그때마다 제가 제 무덤을 파는 격이 되고말았다. 《제2연평해전》이니, 연평도사건이니 하는것들이 보여주듯이 괴뢰군부깡패들은 영용한 우리 인민군장병들의 단호한 불벼락에 의해 흉폐만 갈기였다.

괴뢰들의 꼬락서니를 지켜보며 미국이 쓴입만 다시였으리라는것은 불보듯 뻔하다. 이로부터 미국과 괴뢰들은 지난해에 《중심을 타격해 작전결과가 최대효과》를 내도록 한다는 《작전계획 5015》를 꾸며내게 되었다. 이 작전계획의 실행을 위해 호전광들은 이미 우리의 전략적대상들을 겨냥한 700여개의 《합동요격지점》들을 확정해놓은 상태에 있다고 한다.

미국과 남조선괴뢰들이 강행해나선 《키 리졸브》, 《독수리 16》합동군사연습은 《작전계획 5015》의 실전가능성을 확정하기 위한것이다.

《키 리졸브》, 《독수리 16》합동군사연습의 테두리내에서 《작전계획 5015》에 따라 광기적으로 감행된 련합《상륙훈련》, 특수작전, 시가전, 도하작전, 《정밀타격훈련》 등 우리 공화국의 전략적종심과 중요거점들을 노린 불장난소동들은 우리의 최고존엄에 도전해나선 미제와 박근혜역적패당의 무모한 군사적도발망동이 더이상 참을수 없는 극단적지경에 이르렀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내외호전광들의 천하무도한 도발망동은 원쑤들에 대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증오심과 복수심을 더욱 천백배로 치솟게 하고있다.

우리의 최고존엄에 도전해나선 특대형도발자들은 그가 누구이건 이 하늘아래 살아숨쉴수 없게 모조리 죽탕쳐 철저히 매장해버리려는것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억척불변의 의지이다.

미국과 괴뢰들이 미친듯이 벌려놓은 극악무도한 《북종심내륙전공작전》과 《평양점령작전》, 《참수작전》 등은 우리에 대한 가장 로골적인 침략책동, 적대행위의 극치이다. 우리의 최고존엄을 감히 모독한 미국과 괴뢰역적패당의 도발행위는 천추에 용납 못할 악행중의 악행이다.

혁명의 최고수뇌부를 지켜 자기 생명도 서슴없이 바쳐싸우는 우리 군대와 인민이다.

우리 천만군민은 그가 누구이든 우리의 최고존엄을 털끝만큼이라도 건드리려 한다면 추호의 용서도 아량도 인내도 모르고 그 즉시 가차없이 징벌해왔다.

다발적으로, 련발적으로 휘해지고있는 우리의 강력한 대응조치들은 분명 없이 날뛰는 침략의 무리들이 신성한 내 조국강토에 단 한점의 불꽃이라도 튕긴다면 이 세상 가장 정의롭고 위력한 백두산총대로 미제침략자들과 박근혜괴뢰역적패당에게 무자비한 죽음을 안기고 전쟁의 근원을 송두리째 들어내고야말려는 천만군민의 보복의지의 파시이다.

미국과 박근혜역적패당은 그따위 비렬한 음모책동으로 우리의 최고존엄과 사회주의제도를 어째보려는 어리석은 망상을 버려야 한다.

혁명의 수뇌부의 두리에 천만군민이 천겹만겹으로 뭉친 수령결사옹위의 성새는 그 어떤 핵폭탄으로도, 그 무슨 특수작전으로도 절대로 헤칠수 없다. 태양이 없는 세상이 있을수 없듯이 우리 혁명의 수뇌부가 없는 조선, 조선이 없는 지구는 절대로 생각할수 없다.

하늘이 만든 화는 피할수 있어도 제가 만든 화는 피할수 없다는 말이 있다.

이 땅에서 일단 싸움이 벌어진다면 우리 혁명무력의 보복성전은 미제와 괴뢰역적패당이 감행한 천인공노할 특대형범죄의 대가를 천백배로 받아낼 때까지 순간도 멈춤없이 강도높게 벌어질것이며 자비를 모르는 백두산총대는 박근혜《정권》에 가장 참혹한 멸망을 안기고야말것이다.

미국과 박근혜역적패당은 우리와의 군사적대결로 차례질것은 무자비한 징벌과 비참한 운명뿐이라는것을 명심하고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한다.

심 철 영

핵전쟁머슴군의 푼수없는 망발질

백두산대국의 련속적인 초강경조치들에 혼맹이가 빠진 괴뢰역적패당이 《북의 추가핵시험》이니 뭐니 하고 푼수없이 우리를 걸고들며 망발질하고있다.

얼마전 박근혜역도는 《국무회의》라는데서 《북의 핵시험강행의사》니, 《무모한 위협》이니 하고 우리의 자위적핵억제력강화조치를 입에 게거품을 물고 헐뜯으면서 그 무슨 《철저한 대비태세》에 대해 미친년처럼 고아댔다. 괴뢰외교부 대변인이라는자도 덩달아 《북의 핵도발》에 따른 《단호한 대응》을 운운하였다.

개는 짖어도 행렬은 나간다. 박근혜패당이 아무리 《북의 추가핵시험》나발을 줴치며 대결광기를 부려도 정의의 핵위성으로 천하무도한 도발자들을 단호히 징벌하려는 우리의 결심과 의지를 한치도 흔들수 없다.

뻔뻔스러운것은 역적무리들이 《위협》이니, 《도발》이니 하고 또다시 우리에게 감투를 씌우려고 발광하고있는 사실이다. 입은 비뚤어져도 주라는 바로 불타고 했다. 도대체 조선반도핵위기의 장본인이 누구이길래 우리를 걸고드는가.

다시금 명백히 하건대 핵억제력강화를 위한 우리의 초강경조치는 미국의 가증되는 반공화국핵공갈과 위협에 대처한것이다.

미국이 오래전부터 우리 공화국을 핵선제타격대상으로 지목하고 각종 핵전쟁장비들을 남조선에 대량적으로 끌어들이며 우리에게 끊임없이 핵위협을 가해왔다는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지금도 미국은 방대한 침략무력과 악명높은 핵전략타격수단들을 총동원하여 도발적인 《독수리 16》합동군사연습을 미친듯이 벌리고있다. 지어 괴뢰들과 함께 우리 수뇌부와 전략적핵심시설들을 노린 《북종심내륙전공작전》과 《평양점령작전》, 《참수작전》과 같은 극히 엄중한 군사적도발망동까지 감행하였다. 미국의 위협천만한 도발행위로 하여 오늘 조선반도에는 언제 핵전쟁의 불집이 터질지 알수 없는 일촉즉발의 위기사태가 조성되고있다.

미국이 핵몽둥이를 휘두르며 미친듯이 허덕비고있는 위험천만한 사태앞에서 우리가 존엄과 자주권을 지키기 위해 핵타격능력을 부단히 강화해나가는것은 너무도 당연한 리치이다. 미제와 박근혜역적패당이 가장 로골적인 핵전쟁도발을 걸어온 이상 우리는 그에 대처하여 백두산혁명강군의 핵공격능력강화를 위한 필요한 조치들을 계속 취해나가게 될것이다.

현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미국과 괴뢰역적패당에게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패당이 《위협》이니, 《도발》이니 하고 우리의 자위적핵억제력강화조치를 악의에 차서 시비질하고있으니 이 얼마나 파렴치한짓인가.

그때 역도는 과연 세치 혀바닥으로 엄연한 현실을 외곡할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괴뢰들은 우리의 핵억제력강화조치에 대해 입방아질하기 전에 미국의 북침핵전쟁도발책동에 적극 가담해나서고있는 저들의 극악무도한 죄악부터 돌이켜보아야 한다.

제 밑 구린줄은 모르고 남만 시비질한다더니 상전의 핵무기를 잔뜩 짊어지고 북침야망실현에 피눈이 되여 날치는 핵전쟁머슴군이 그 주제에 어데다 대고 망발질인가.

죽을지살지 모르고 미국의 핵전쟁책동의 앞장에서 미쳐날뛰는 괴뢰들은 개패는 몽둥이에 쥐까지 맞아죽는 꼴이 되고말것이다.

우리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위협하고 최고존엄까지 감히 노리면서 핵전쟁의 참화를 몰아오고있는 미국과 박근혜역적패당에 대한 천만군민의 분노와 적개심은 지금 하늘을 찌르고있다.

수령결사옹위정신으로 만장약된 우리 혁명무력은 끓어오르는 증오심을 안고 미제와 괴뢰역적무리들의 대결망동과 핵전쟁도발광기를 무자비하게 짓뭉개버리기 위한 총공세를 선포하였다. 우리의 모든 전략 및 전술타격수단들은 핵전쟁도발에 광분하고있는 내외호전광들의 일거일동을 조준경안에 집어넣고 공격명령만을 기다리고있다.

누르면 청와대와 백악관은 불바다에 잠기고 타격하면 모든것이 재가루가 되게 되여있다.

박근혜역적패당은 미국의 핵전쟁수칭을 들다가 천벌을 받지 않으려거든 분수없이 들까불지 않는것이 좋을것이다.

은 정 철

극악무도한 반역무리들을 선군의 무쇠마치로 무자비하게 짓뭉개버릴것이다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 대변인성명

백두산천출명장의 현명한 지도밑에 박근혜역적패당의 소굴을 초토화해버리려는 선군조선의 의지를 선언하며 힘있게 울려퍼진 원쑤격멸의 포성은 우리 전체 로동계급의 심장을 세차게 격동시키고있다.

극악한 북침핵전쟁연습으로 조선반도의 정세를 최악의 폭발계선으로 몰아가고도 모자라 우리 혁명의 최고수뇌부를 노린 《정밀타격훈련》까지 공공연히 벌려놓으며 하늘무서운줄 모르고 날뛰는 박근혜역적패당에 대한 우리 천만군민과 로동계급의 치솟는 증오와 복수의 열기는 하늘에 닿고있다.

백두산절세위인들의 품속에서 영웅적인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으로, 나라의 말아들로 떠받들어 피우며 값높은 삶을 빛내이고있는 우리 로동계급이기에 혁명의 수뇌부를 자기 삶의 전부보다 더 신성시하고있다.

우리의 존엄높은 최고수뇌부를 털끝만큼이라도 건드리는자들이 있다면 하늘끝에 올라가고 땅속을 뒤져서라도 가차없이 선군의 무쇠마치로 무자비하게 짓뭉개버리는것이 우리 천만군민의 철석의 의지이며 영웅적로동계급의 본때이다.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는 무모한 북침전쟁책동에 광분하다못해 감히 하늘의 태양을 가리워보려고 어리석게 놀아대는 미제와 박근혜역적패당의 특대형도발망동을 우리 전체 로동계급의 이름으로 준렬히 단죄규탄한다.

주체혁명의 핵심부대인 우리의 영웅적인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은 억년드놀지 않는 오늘의 수령결사옹위전에서 천만군민의 억센 강철기둥으로 우뚝 서있으며 미제와 박근혜역적패당을 격멸소탕하기 위한 정의의 성전에서 언제나 제일선참호에 서있다.

원쑤들의 머리우에 무서운 철퇴를 안길 수령결사옹위전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우리 로동계급은 만일 적들이 단 한점의 불꽃이라도 튕긴다면 무쇠마치를 들었던 손에 혁명의 총대를 억세게 틀어쥐고 노도치는 백두산혁명강군과 함께 박근혜역적패당의 소굴부터 초토화해버리고 남반부를 해방할것이며 남조선전역에 근로인민의 새세상을 일떠세울것이다.

세계는 락월한 선군령장의 두리에 억척같이 뭉친 우리 로동계급을 비롯한 천만군민이 우리의 최고존엄에 대한 치떨리는 만행을 감행한 도발자들을 어떻게 징벌소탕하고 반미대결전, 조국통일대전의 최후승리를 안아오는가를 똑똑히 보게 될것이다.

불구대천의 원쑤 미제와 박근혜역적패당은 우리 인민앞에 저지른 만고대역죄에 대한 가장 처절한 대가를 치르게 될것이다.

남조선의 로동자들과 각계각층 인민들은 미제와 박근혜역적패당의 무모한 북침핵전쟁도발책동을 저지파탄시키고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수호하기 위한 거족적인 애국성전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한다.

주체105(2016)년 3월 26일
평 양

전쟁불장난소동이 빚어내는 재난

남조선도처에서 미제와 괴뢰들의 북침전쟁연습소동이 광란적으로 감행되고있는 속에 인민들이 당하는 고통과 재난도 날로 커가고있다. 특히 북침전쟁연습장가까이에서 살고있는 주민들은 밤낮으로 이어지는 호전광들의 불장난소동때문에 언제 한번 마음을 놓지 못하고 매일매일을 그야말로 불안속에 보내고있다. 갑자기 살림집들에 총포탄이 날아드는가 하면 끊임없이 들려오는 폭음과 땅크, 장갑차의 굉음, 요란한 비행기소음 등으로 겪는 주민들의 고통은 이루 헤아릴수 없다. 그들속에서는 북침전쟁연습책동으로 하여 각종 질병과 기능장애현상까지 나타나고있다고 한다.

얼마전 미제침략군의 대규모 훈련장이 위치하고있는 경기도 포천에서 전쟁연습소동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집회가 열리였다. 포천사격장 범시민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이곳 주민들은 《포탄이 집에까지 날아오는데 어떻게 안심하고 살겠는가.》, 《포사격소리때문에 귀가 안들린다.》,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손털고 나앉아있는데 며칠만이라도 여기서 살아보라.》고 울분을 터치였다. 또 어떤 주민들은 《포탄이 날아올가봐 두려워 하늘만 보고 산다.》고 하면서 불안감을 금치 못하였다.

이곳 주민들은 지난해에 전쟁연습장에서 날아온 포탄이 어느 한 집의 지붕우에 떨어졌던 일을 생각하며 지금도 몸서리치고있다. 지난 12일에는 포천시의 한 축산농가에서 호전광들의 포사격훈련소음때문에 새끼를 밴 암소가 류산하는 일까지 있었다. 짐승들이 받는 피해가 이정도인데 사람들이야 더 말해 무엇하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남대결과 새 전쟁도발에 환장이 되여 날뛰는 박근혜일당은 인민들의 항의규탄의 목소리에는 귀를 틀어막고 미국과 함께 북침불장난소동의 도수를 갈수록 높이면서 그들에게 이중삼중의 고통을 들씌우고있다.

경기도 포천의 주민들의 경우를 놓고보아도 그들은 이미전부터 자신들이 북침전쟁연습으로 당하는 커다란 피해에 대해 토로하면서 괴뢰당국이 그것을 막기 위한 대책을 세울것을 강하게 요구해왔다.

하지만 인민의 의사와 요구를 짓밟으며 매국과 반역으로 명줄을 이어가는 괴뢰보수패당이 그들의 요구를 받아들일리 만무했다.

남조선의 《련합뉴스》는 경기도 포천의 주민들이 전쟁연습때문에 입는 피해는 크지만 그에 따른 대책은 아무것도 없다고 전하였다. 현실은 바로 이렇다.

하기야 미국의 핵전쟁머슴군, 좌두각시인 박근혜역적패당에게 있어서 미제침략군때문에 재난을 당하는 남조선인민들의 고통이 제 고통만도 못할것은 뻔한노릇이다.

지금껏 남조선인민들이 미제침략군의 군화발에 짓밟히며 갖은 수난과 희생을 강요당해왔다는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돌이켜보면 70여년에 걸치는 미제의 남조선강점사는 그야말로 무고한 인민들의 피눈물과 상처자욱으로 얼룩지고 불행과 고통으로 가득한 재난의 력사이다.

동두천녀인살해사건, 윤금이살해사건, 신효순, 심미선학살사건, 매향리폭격만행 등 미제침략자들이 남조선을 타고앉아 저지른 범죄적만행을 다 꼽자면 끝이 없다. 특히 미제침략군이 남조선에서 북침전쟁불장난소동을 미친듯이 감행하면서 인민들에게 들씌우는 재난과 고통은 실로 큰것이다.

미제침략군이 저지른 매향리폭격만행은 북침전쟁연습때문에 참을수 없는 고통속에 신음하는 남조선인민들의 불행한 모습을 오늘도 뚜렷이 새겨주고있다.

그러나 괴뢰통치배들의 안중에는 미국상전만 있고 이자들의 골통에는 북침야망만 꽉 들어찼을뿐 인민들의 생명재산의 안전같은것은 그림자도 찾아볼수 없다. 오히려 미제침략군을 《보호자》, 《은인》으로 섬기고 그에 아부굴종하면서 침략군의 유지비로 해마다 숱한 돈까지 가져다 바치고있다.

박근혜역적패당의 친미사대적기질과 반인민적본성은 상전과의 북침합동군사연습에 해마다 극성을 부리면서 인민들에게 헤아릴수 없는 고통을 마구 들씌우는데서 여실히 드러나고있다. 이런 매국반역의 무리들이 미국상전과 야합하여 매일같이 동족대결과 침략전쟁도발책동에 미쳐날뛰고있으니 남조선인민들이 어떻게 하루라도 발편잠을 잘수 있겠는가.

박근혜와 같은 극악한 친미역적, 동족대결광신자가 청와대에 틀고앉아있는 한 남조선인민들은 언제 가도 북침전쟁연습으로 인한 재난에서 벗어날수 없다.

남조선인민들이 오늘의 불행과 고통에서 헤어나자면 대중적인 반미반전, 반역《정권》타도투쟁으로 미제와 괴뢰당국의 북침전쟁도발책동을 끝장내고 매국반역의 무리를 권력의 자리에서 지체없이 물아내야 한다.

그 길만이 남조선인민들이 살 길이다.

장 임 향

정의는 반드시 이기는 법

재중조선인총련합회 길림지구협회 부회장이 22일 담화를 발표하였다.

담화는 우리 공화국이 적대세력들의 류례없이 무모한 정치, 군사적도발에도 끄떡없이 자기의 존엄과 위용을 온 세상에 높이 떨쳐가고있다고 밝혔다.

담화는 미국과 남조선호전광들이 우리 공화국의 핵억제력을 걸고들며 사상 최대규모의 북침전쟁연습소동을 벌려놓았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전체 재중조선인들은 미국과 남조선호전광들이 벌리고있는 무모한 북침전쟁책동을 준렬히 단죄규탄하면서 미국과 남조선호전광들이 저지르는 로골적인 북침전쟁책동을 비호두둔하고 반공화국《제재》놀음을 강행한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처사에 강력히 항의한다.

미국과 남조선호전광들은 물론 국제사회는 우리 공화국이 지금까지 행사하여온 모든 조치들이 주권국가의 합법적이고 정정당당한 조치라는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정의는 반드시 이기는 법이다.

지금 조선반도에서는 미국과 남조선호전광들의 북침전쟁도발책동으로 말미암아 일촉즉발의 핵전쟁위험이 조성되고있지만 선군의 보검을 튼튼히 틀어쥔 우리 공화국은 그 어떤 위협과 공갈에도 끄떡없으며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대로 사회주의강성국가를 기어이 일떠세우고야말것이다.

【조선중앙통신】

초보적인 판별능력도 없는 얼간이들의 망동

그 누구든지 아무런 사실적근거도 없이 무턱대고 남의 말을 앵무새처럼 되받아외우며 법석거리면 망신을 당하기 일쑤이다. 미국의 경우가 바로 그렇게 되였다. 얼마전 우리 혁명무력의 신형대구경방사포사격이 진행된 후 남조선괴뢰들은 무슨 큰일이나 난것처럼 아부재기를 치며 우리가 단거리미싸일을 발사하였다고 떠들었다.

불에 놀란 놈 부지깽이만 보아도 놀란다고 날아가는 모든것이 미싸일로 보였던 모양이다.

문제는 미국의 행동이다. 괴뢰들의 보도가 나가자마자 그것을 확인도 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물고 미국무성 대조선정책특별대표, 동아시아태평양담당 대변인, 미국방성 대변인이라는것들이 줄줄이 나서서 한도미싸일기술을 리용한 미싸일발사는 명백하게 유엔안전보장리사회 《결의》위반이라느니, 조선이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동을 자제하고 국제적인 약속과 의무를 준수하는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느니 뭐니 하고 교아댔다.

그야말로 세상사람들의 조소거리가 아닐수 없다.

미국이 한도미싸일발사와 방사포사격까지 구분하지 못하는것을 보면 이제는 신경이 극도로 예민해져 우뢰소리를 듣고도 핵폭발소리로 착각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방사포탄 몇발 쏜것을 놓고 그다지도 신경을 쓰며 법법 떠는것을 보면 우리의 군사적위력에 겁을 먹어도 단단히 먹은것이 분명하다.

바늘귀를 꿰듯 대단히 정확하고 남반부작전지대의 적대상물들에 대한 우리 군대의 정밀공격능력을 비상히 강화하는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지는 훌륭한 방사포무기체계의 실전배비는 미국에 있어서 커다란 악몽으로 되고있다.

미국에 충고하건대 그 악몽에서 벗어날 가장 단순한 방도는 있다.

우리가 그렇게도 무섭고 두려우면 남조선에 배비한 모든 무장장비들과 미군을 철수하며 당면하게는 침략적인 합동군사연습부터 그만두면 된다.

지금 정계나 군부나 할것없이 미국의 고위인물들은 누구나 다 공포감에 사로잡혀 사고가 완전히 흐트러지고 마구 헛갈려 뒤죽박죽이 되였다. 아예 정신착란증환자처럼 놀아대고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초대국》으로 자처하는 미국이 제통에 어울리지 않게 하수인의 장단에 놀아나 방사포사격을 미싸일발사라고 하면서 위반이니 뭐니 하고 떠들겠는가.

초보적인 판별력도 주견도 없는 이런 자들이 《초대국》의 대변인노릇을 한다는것자체가 세상웃음거리이다.

물론 미국의 정신착란증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관할바가 아니다. 하지만 체질적이며 병적인 거부감에 사로잡혀 우리를 걸고드는데 대해서는 절대로 용납할수 없다.

미국이 무턱대고 우리의 신형대구경방사포사격을 단거리미싸일발사라고 단정하면서 그것이 유엔안전보장리사회 《결의》위반이라고 걸고드는데는 음흉한 속심이 있다.

지금 국제무대에서는 이번에 《년례적》이니, 《방어적》이니 하는 간판마저 떼버리고 우리의 최고존엄과 제도를 어째보려는 기도를 로골적으로 드러내며 사상 최대규모의 합동군사연습을 벌려놓은 미국이야말로 긴장격화의 장본인이라는 인식이 더욱 굳어지고있다.

세계의 초점은 남조선에서 광란적으로 벌어지고있는 전쟁연습에 모아지고있다. 국제사회는 미국이 불장난소동을 당장 걷어치울것을 강력히 요구하고있다. 미국은 평화의 파괴자로 불리우고있다.

바빠맞은 미국은 우리의 군사적대응조치들이 취해질 때마다 기회를 놓치지 않고 국무성과 국방성의 고위인물들은 물론 내세울수 있는 어중이떠중이들은다 내세워 막무가내로 그 무슨 《위반》이요, 《도발》이요 하면서 입을 모아 떠들어대고있다. 그렇게 해서라도 조선반도긴장격화의 책임을 우리에게 넘겨씌우자는것이 미국이 노리는 목적이다.

미국이 저들이 벌려놓은 전쟁연습을 그 누구의 《도발》을 억제하고 《평화보장》을 위한것이라고 억지를 쓰며 정당화하고있는데 이것은 궤변중의 궤변이다.

미국이 방대한 핵무장장비들을 끌고 태평양을 넘어와 우리의 면전에서 불장난소동을 벌려놓고 고의적으로 전쟁분위기를 고취하고있는데 어떻게 그것이 평화를 위한것으로 되는가.

만일 우리가 그 론리를 따라 핵무기를 가지고 미국의 코앞에서 군사연습을 벌리면서 도발을 억제하고 평화를 위한것이라고 한다면 과연 납득이 될수 있겠는가.

미국은 여기에 할 말이 없을것이다.

이번에 우리가 취한 조치들은 미국이 사상 최대규모의 침략무력과 전략자산들을 동원하여 우리의 최고수뇌부를 노린 군사적망동들을 련이어 벌려놓고있는데 대한 응당한 자위적조치이다.

상식도 리성도 모르고 부정의의 힘을 함부로 휘두르며 날뛰는 무지막지한 침략자들은 오직 힘으로 무자비하게 답새겨야 한다.

우리는 미국이 군사적압박으로 우리 제도를 붕괴시키려고 피를 물고 날뛰는 조건에서 그에 대응한 자위적조치를 계속 취하지 않을수 없다.

원쑤들이 칼을 빼들면 장검을 휘두르고 총을 내대면 대포를 내대는것이 우리 군대의 담대한 배짱이고 기질이며 본때이다.

우리는 히스테리적인 전쟁광기를 부리며 우리 민족을 핵참화속에 몰아넣으려고 최후발악하고있는 미국의 전쟁광증을 앉아서 지켜보고만 있지 않을것이다. 우리는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을 수호하기 위하여 미국이 핵위협공갈과 적대시정책을 그만두지 않는 한 우리 식의 강력한 대응조치들을 다발적으로, 련발적으로 취해나갈것이다.

이것은 그 누구도 시비할수 없는 우리의 자위적권리행사이다.

리 학 남

과학기술소식

식량문제해결에 도움을 주는 무토양농법

부침땅이 부족하고 기후가 농사에 적합치 않은 나라들에서 무토양농법을 받아들이면 얼마든지 식량을 자급자족할수 있다.

선진적인 수경재배기술과 제단식수직재배기술에 의거한 무토양농법을 받아들이면 영양분이 풍부한 물을 리용하여 같은 면적의 부침땅에서 재배한것보다 거의 100배나 많은 식량을 생산할수 있다.

작물이 실내에서 기술자들의 항시적인 감시하에서 자라는것만큼 기후나 오염, 병해충에 의한 피해를 덜 받는다.

또한 작물은 영양분을 필요한만큼 보장받으며 빛합성도 요구하는 수준에서 이루어진다. 무균상태에서 자래우면서 비료나 살충제, 살초제 등 화학물질을 쓰지 않기때문에 작물은 하나같이 깨끗하고 생신하며 건강에도 유익하다. 그리고 먹기에도 좋고 영양분이 풍부하며 생장속도 역시 빠르다.

한 생물공학자는 《무토양농법에서 작물은 뿌리조직의 생장과정에 에네르기를 소비하지 않는다. 그것은 영양분을 찾는데 에네르기를 소비하는 일반작물과는 달리 알맞는 영양분을 직접 보장받기때문이다.》라고 말하였다.

한편 로력이 적게 들고 화학처리가 필요없기때문에 경제적실리도 크다고 한다.

물소비량은 일반농법으로 같은 면적의 부침땅에서 소비하는 물량의 10%정도밖에 안된다. 비록 초기에는 원가가 대단히 많이 들지만 총적으로 볼때 무토양농법은 원가를 90% 낮출수 있다고 한다.

용기모생산

오늘날 나무모생산기술은 산림조성사업에서 관건적인것으로 되고있다.

여기서 기본주세로 되고있는것이 용기모생산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용기모생산이 하나의 혁명이라고 간주하고있다.

이미 오래전에 유럽 등 발전된 나라와 지역들에서는 용기모를 광범히 생산, 리용하여왔다. 특히 계절에 관계없이 나무를 심는데서 용기모가 날로 광범히 리용되고있다.

비록 용기모는 가격이 조금 비싸지만 사용률이 높고 나무심기를 진행한 후에 보식을 줄일수 있는것으로 하여 앞으로 나무모생산과 거래의 주요형식으로 될것이라는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장기적으로 볼 때 용기모생산은 경제적이고 생태보호적인 나무모생산방식으로서 널리 보급할 가치가 있다.

용기모가 땅에서 키운 나무모와 다른 점은 나무모를 땅에서 용기로 옮긴데만 있는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하게는 기질과 물, 비료배합비률을 조절하여 나무모의 표준화, 상품화를 실현한데 있다고 한다.

용기모생산기술을 널리 보급하자면 기질문제를 반드시 해결하여야 한다는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기질로는 일반적으로 나무밥을 리용할수 있지만 목화씨껍질과 버거를 리용할수도 있다. 이것들을 발효시킨 후 여기에 너탄과 모래, 비료 등을 일정한 비률로 첨가하면 질좋은 기질을 얻어낼수 있다.

용기모를 생산하면 로력과 부지를 절약할수 있으며 그 성장상태도 땅에서 키운 나무모보다 훨씬 좋다.

용기모를 생산하는 양묘장은 밭에서 나무모를 생산하는 양묘장과는 달리 토양의 구조와 지력 등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 용기도 여러가지 재질로 만든것을 쓸수 있다.

본사기자 박 송 영

ㄱ-610501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발송특별 위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본설원실 373-5428, 당력사교양부 373-5528, 당생활부 370-4628, 사회주의교양부 372-36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5628,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 집 위 원 회